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은 십계명으로 구원받는다

박진호

(www.whyjesusonly.com)

(출 20:1-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6) 살인하지 말지니라

7) 간음하지 말지니라

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차례

들어가면서.....	4
모든 인간은 십계명으로 구원받는다 (출 20:1-17)	9
첫 계명의 뜻도 모르는 신자들 (출 20:1-3)	20
우상이 정말로 무엇인지 아는가? (출 20:4-6)	30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출 20:7)	43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출 20:8-11)	56
효도하면 장수하는가? (출 20:12)	69
정말로 무시무시한 살인 (출 20:13)	81
Me too 운동의 영적 실상 (출 20:14, 마 5:27-32)	93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뜻은? (출 20:15, 신 24:6).....	105
목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출 20:16) (신 13:6-9)	119
십계명의 결론은? (출 20:17)	132
신자가 평생토록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출 24:1-11).....	144
에필로그	156

들어가면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도서 1:2-3)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한탄입니다. 인생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비교와 최상급 표현법이 따로 없는 히브리어로는 두 번 되풀이 하면 비교적인 강조, 세 번 되풀이 하면 최고도의 강조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려 다섯 번이나 헛되다고 되풀이 했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라곤 눈을 닦고 살펴봐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냥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 말고는 인생을 설명할 말이 달리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한탄한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헛된 것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산출도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므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결론은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지닌 학식 경험 문화 사상 종교와 상관없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는 절로 입에서 새어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나 아등바등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덧없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절감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따져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려고 열심히 살아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인간 사회에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각기 고유의 종교를, 최소한 그 사회에 통용되는 윤리 규정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먹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자기는 물론

자신이 이론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다 썩어 없어질 텐데 구태여 귀찮고도 힘들게 그런 기준을 따라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 한 사회가 문제없이 공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개인에 적용하면 죽어서 다 없어질지라도 그 때까지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아야만 자기도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규범들은 순전히 사회와 개인의 안전을 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벌칙을 준행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면 깨끗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하게도 규정대로 다 처리했는데도 씁쓸한 죄책감이 계속 남아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그럼 그 윤리규정이 단지 그 사회를 큰 문제없이 보존하는 기능 외에 다른 역할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기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나라마다 문화와 생활수준이 달라도 지금껏 모든 인간 사회가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몇 가지 윤리 계명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증거는 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십계명의 인간관계에 대한 후반(5-10 번째) 여섯 계명들입니다. 이 여섯에 대해선 범죄 구성 요건이나 징벌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를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인간 공동체는 유사 이래 없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인간사회가 이렇게 나름의 윤리규범을 가진 것은 그 지도자들이 구성원들을 교육 훈련시킨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명들이 대대로 교육 훈련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행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과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까? 공간적 시간적으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서로 다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이 의논 한 번 하지 않고도 이 여섯 계명만은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나아가 사람들이 그것들을 위반하면 따르는 징벌 조항과 무관하게 누가 강요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그 규정들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정 종교를 갖지 않고 윤리 과목에 우등생이었던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이 계명들만은 모든 인간에게 부인되지 않고 더 잘 지키고 싶은 보편적 기준으로 그 마음 판에 이미 다 심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유감스럽게 21 세기에 들어서 일부 선진국에선 그 여섯 중에 간음 하나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제만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막상 간음을 행한 당사자에게 죄의식은 여전히 생긴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선 인간이 원래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양심적 존재였다는 것 외에는 합당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원래부터 그랬다면 인간이 스스로 의식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 안에 그런 성향을 심어놓았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을 닮아서 도덕적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 형상이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 내지 왜곡되었어도 희미하게나마 양심의 형태로, 최소한의 이 여섯 공통된 계명으로 모든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 외에 단 하나의 의미도 찾을 수 없지만, 영원한 땅을 조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비록 수고하든 평온하든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전 3:10-15)

작금 십계명은 몽땅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완전히 케케묵은 유산으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십계명은 인간이라면 세대 장소 인종 문화 나라를 넘어서 누구나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바의 최소한이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규범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집니다. 솔로몬도 물질적 정치적 풍요를 넘치도록 다 누려봤지만 그것만으로는 헛됨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그 헛됨이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인간관계의 여섯 계명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십계명의 전반 네 계명들을 준행하는 바탕에서만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지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는 아무리 잘 준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인간끼리만 있다면 구태여 윤리적 존재가 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최대한 양보해도 살펴본 대로 인간 사회 보존할 수 있는 최소의 규칙을 만들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 만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요구인 십계명을 지금이라도 현대적 언어로 치환하여서 그 영원한 진리 됨이 손상치 않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나아가 세속의 인간들도 인간답게 또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정말로 온전하게 유지 성장할 있는 길도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8 년 초에 행한 출애굽기 강해설교 중에 십계명 부분만 따로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정말로 거룩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교회마다 십계명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감히 소망해봅니다.

마지막이지만 제 글들을 아무 대가 없이 E-book 파일로 전환 편집해주신 박충명 형제의 노고에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홈페이지를 통해 그런 귀한 형제님을 만나고 교제 동역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으며 제게 맡겨주신 소명에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해봅니다.

2019 년 8 월

모든 인간은 십계명으로 구원받는다 (출 20:1-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17)

철거되는 십계명 기념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동남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강세로 바이블 벨트(Bible Belt)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주정부 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십계명 동판이나 기념비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기독교라는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 받은 것이라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십계명이 기독교 고유의 종교적 계명에 그치는지 심각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십계명의 내용은 그리 심오하지 않다. 특별히 후반 여섯 계명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보편적인 도덕률이다. 전도를 하면 자주 듣는 대답이 있다.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의 하나다.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 외부에선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신자들까지 십계명을 유대교의 오랜 유산 정도로 여기고 신약 성도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만 믿고 있고, 미신 같은 우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며, 오늘 같이 눈이 오는 날에도 교회에 출석했듯이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며, 예수 믿은 후에는 더욱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윤리적 죄 값까지 다 감당하신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십계명은 그렇게 소홀히 취급될 수 없고 그 기념비들이 박물관에만 모셔놓을 수 없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고달픈 노예 생활을 종식시키는 데 있지 않다. 시내 산에서 바로 이 십계명을 계시해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당신 백성을 향한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그들 각자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또 거룩해진 개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이미 배운 대로 세계가 다 당신께 속했기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는 언약을 체결했다.(출 19:5,6)

세계는 당신이 만드셨다. 당신의 소유이다. 그 말은 당신의 사랑을 베풀 대상이라는 뜻이다. 십계명은 이 땅 전부를 당신의 사랑 안에 붙들어 주는데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첫째 장치이다. 그분의 사랑의 울타리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삼일 간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한 후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구술(口述)한 것이다.

유토피아의 두 가지 뜻

언뜻 보면 십계명은 피조세계 전체를 통괄하는 계시로는 너무 평범한 것 같다. 불신자 중에 의인이 많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경우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불효, 살인, 간음, 도둑, 거짓증거 등이 자기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칠만하다.

그런데 TV 뉴스에 매일 나오는 내용이 전부 십계명을 위반한 범죄들뿐이지 않는가? 수도 없이 많은 세상 죄들은 어쨌든 이 여섯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어긴 적 없다고 큰소리쳤다. 막상 세상의 문제거리 전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뿐이지 않는가? 만약 뉴스에서 이 여섯 가지 범죄가 다 빠진다면 보도할 내용이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모두 실감할 것이다.

요컨대 십계명이 기독교만의 계명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라, 인종, 문화, 전통, 관습, 교육, 사상, 특별히 종교와 시대를 넘어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준행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다. 사탄 숭배나 KKK 같은 사악한 집단을 빼고 어떤 종교에도 나아가 모든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이다. 특정 종교인 이전에 인간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민 의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짐승일 뿐이다.

헬라어로 이상향(理想鄉)을 말하는 유토피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도 상반된 것이다. 먼저 명사로는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 범죄가 없이 서로 사랑하는 최소한 공존이 가능한 사회다. 이 말의 어원이 된 동사의 뜻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는가? 고대 헬라는 인류 철학의 발상지인데 그때부터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다는 것이 말이다.

사도행전 17 장 후반에 따르면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자기들이 고안해 낸 신들을 숭배했고 새로운 사상에 대한 관심만 지극했다. 바울을 청해 예수 부활의 도를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전무했던 무신론자들이었다. 바울이 전도에 실패한 유일한 지역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자연적 성품 그대로도, 기독교식으로 말해 죄에 찌든 본성만으로도 인간 사회의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상향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형제를 매일 살인하는 신자들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 구조와 순서부터 살펴야 한다. 익히 배워서 아시는 대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신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사회에서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를 말한다. 수직적 관계가 먼저 나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인간관계도 바로 선다는 뜻이 된다.

또 그래서 신자들이 새벽에 큐티를 통해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려 한다. 큐티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의 하루의 삶의 양상이 달라짐도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정도 갖고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 적용하고 있다고 자부해선 크게 부족하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tv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볼 때에 저런 죽일 놈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반응부터 먼저 나오면 아직 십계명을 모르는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해 아직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알고도 잊고 있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옛 사람 즉,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마 5:21)

형제의 원어는 가족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같은 조상과 같은 나라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매일 정겹게 만나는 이웃은 물론 tv 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죽일 놈”도 아니고 단지 바보라고 비하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정죄했다.

또 간음치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선언했다.(마 5:27,28) 살인과 간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죄의 대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차적 의미는 죄란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말과 생각으로 지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이며 또 죄의 본질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한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 가르침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자 율법의 정결례를 위반했다고 시비를 걸어왔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럽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횡방이다.(마 15:9) 놀랍게도 십계명의 여섯 계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악한 생각은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 횡방은 남들의 물건을 탐내며 탈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형제를 욕하는 것이 살인인데 지금 살인은 속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럼 tv 에 나오는 자들을 보고 저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남들보다 우월한 도덕성, 종교성, 영성을 가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 속이 완전히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기에 네 자신 전부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정신과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시키라는 것이 일차적 뜻이 아니다. 너희 정신과 영혼이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했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보다 육백 년 전에 선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것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아프고 찢리는 선언이지만 엄연한 사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예수님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확하게 십계명의 여섯 계명과 일치함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tv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와 지금 교도소 안에 갇힌 죄수들과 그들을 보며 죽일 놈이라고 큰소리치는 놈이나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o. j. 심프슨이 유전무죄(有錢無罪)가 된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이다.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거나, 권력에 기대어 판결을 굽게 하거나, 영악하게 법조문의 문자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치사하고 교묘하게 구는 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 사회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일 뿐이다.

혹시라도 아직 나는 그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가? 솔직히 교양, 예의, 도덕, 종교로 위장했다 뿐이지 누구라도 언제 어떤 상황이든 살인 간음을 밥 먹듯이 행할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 솔직히 저부터 너무나 교만했고 아직도 그 교만을 완전히 떨치지 못해서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살인죄를 가족 안에서부터 심심찮게 범하고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제자들이 형제들이 범죄 하면 얼마까지 용서해주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다. 형제의 뜻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뜻한다.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490 번을 용서해주라고 했다.(마 18:21) 이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숫자임을 우리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절대 정죄하지 말고 모두 은혜로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 믿는 신자니까 일반인이나 타종교인보다 도덕적 수준이 월등 높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극한의 인내심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뜻도 아니다. 속에 있는 배알은 전부 버리고 쫓대 없이 살라는 뜻도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더러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 십자가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고통이거나 부담 주고 싫은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예수님 경우에 보듯이 사형수 본인이다. 매일 아침 큐티 할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서 죽이라는 뜻이다.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부터 보면 결코 용서가 쉽지 않다. 490 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대신에 네가 형제를 살인한 일이 겨우 490 번뿐이겠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저처럼 가족을 바보라고 수도 없이 비난하면 몇 달이면 그 정도 살인하고도 남는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정죄할 자격과 조건이라곤 추호도 없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을 하지 못하면 이웃이라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안 되면 용서라도, 용서가 안 되면 정죄라도 하지 말며, 정죄를 앎는 것이 안 되면 판단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 중에 그럴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목사라도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네 자신을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이다.

십계명의 구조 자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지 않는가? 모세 당시에 예수 십자가 대속구원의 진리를 설명해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막 노예 살이를 벗어났고 시내 산에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벅찬 희망으로 차있다. 율법을 받기 전이라 동물제사도 시행해 본 적이 없어 그 뜻이 뭔지 모른다. 너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가르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먹을 만큼 간단한 계명 열 개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 한다. 첫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다. 오늘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서론이고 앞으로 한 계명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순간 그 간단해 보이는 여섯 계명도 절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쉽게 말해 그것만 지켜도 인간 사회에 유토피아가 된다는 것이다. 헬라인의 분별력은 분명히 옳았다. 하나님의 진리에 거의 접근했다. 인간 세상의 가장 현자라고 칭송 받을만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전혀 겸손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십계명은 십자가다.

신자가 TV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향해 저런 죽일 놈이라고 욕하면 자신은 십계명 정도는 가뿐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정확히 말해 착각하는 자들이다. 바꿔 말해 착한 자들이 천국 가야 옳다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범죄자가 잘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인간 그것도 내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예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 받은 자의 첫째 반응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십자가 처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성경에서 산상수훈만이 최고 아니 거의 유일한 진리로 꼽는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인간끼리 자신들의 선한 성품에 의지적 노력을 보태면 유토피아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에 넣지만 않으면 된다고 한다.

인간끼리 유포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다원주의에 영합하고 교회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연적 순서가 된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헬라인들도 깨달은 진리조차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도 산상수훈이 최고라 여기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엄연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작금 그런 자들이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인간을 오직 두 부류로만 나누고 계신다. 나는 십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자신이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자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가 가르치는 도덕률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자다.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뿐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자다. 십계명은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뜻이다.

십계명 기념비를 철거하려는 진짜 이유

세상 사람들이 십계명 기념비를 철거하라고 아우성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사실은 모두가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아주 교묘하고 치사하게 살인 간음 도둑 거짓 증거 남의 물건 탐내고 있다는 점을 다른 이 앞에 안 그런 척 하지만 자기만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쓰레기통에 버려진지 오래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실적 정황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한다. 불공평하고 악에 눈감는다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에 차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독립심을 키운다는 구실로 부모부터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상처와 분노를 안고 자란다. 체면 때문에 겨우 가정의 틀은 유지하지만 매일 바보라고 비난하는 인격적 살인이 가정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이 실종되었다. 부모 사랑마저 잃어버렸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밖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 죽어도 십자가는 거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세대인가?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판국이니 미국의 바이블 벨트에서조차 십계명이 무슨 필요 있느냐는 반발이 생긴다. 가뜰이나 볼 때마다 찢렸으니 아예 없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는 것이다. 때마침 자유, 평등, 인권 등이 지금 미국에선 십계명은 물론 도덕적으로 최고의 우위를 점하게 되자 그 핑계로 옳다구나 철거하려고 덤비는 것이다.

지금 불신자만 탓하려는 뜻이 아니다. 신자들부터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용을 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다. tv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에게 죽일 놈이라는 반응만 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기준, 특별히 도덕과 종교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십자가의 첫째 뜻이지 않는가?

나아가 교양과 예의로 자신의 실상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교양과 예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마저 없으면 지금 당장 멸망할 것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큐티 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고 당연히 다 벗어던져야 한다.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이 내 골수와 심령과 관절을 찢러 쪼개어 십자가 앞에 완전히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큐티 하며 문제와 고난과 상처에 위로되고 힘주는 말씀을 붙드는 것도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부터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야 한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다. 그 정도 용서하려면 아무래도 매일 부딪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물론 그러기에는 아주 힘들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 완전한 절망으로 이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에 빠져야 완전한 소망이 생기는 법이다.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매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긍휼 안에 내 자신부터 완전히 잠겨야 한다. 힘들 때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해야 한다. 그럼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십계명이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이 십계명이다.

첫 계명의 뜻도 모르는 신자들 (출 20:1-3)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절대자는 한 분뿐

일본 주택에는 '도꼬노마'라는 특이한 공간이 집집마다 있다. 거실 한쪽 벽에 신상을 모시도록 낮은 단을 만들어 놓았다.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이 흔히 일본에는 이백만이 넘는 우상이 있다고, 심지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말할 정도다.

지난주에 십계명은 민족과 세대를 초월해 모든 인간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했다. 그럼 일본은 후반 여섯 윤리계명만 해당되고 첫 네 개의 종교적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불신자들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 있다면 한 분이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다른 종교인들도 종교마다 이름만 다르지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자는 한 분뿐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되 그 가르치는 내용과 섬기는 방식만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그럼에도 어쨌든 모든 인간이 절대자의 숫자는 하나뿐이라고 즉, 십계명의 첫 계명을 실질적으로 시인하는 셈이다.

여호와 하나님 또한 많은 신들이 있다고 전제한 후에 그 중에서 당신만 섬기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 십계명 자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둘째 계명에서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다른 신들은 결국 우상들을 가리키는데 인간이 만든 신이 신일 수는 없다.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한데다 각 민족들이 고유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 수준에 맞춘 표현일 뿐이다.

인간 사회가 미개한 모습이라도 종교를 갖게 된 근거와 이유는 무엇보다 자연 현상의 가공할 힘 때문이었다. 인간이 최대한 힘을 모아서 맞서도 아예 게임이 안 되었다. 바람, 바다, 번개, 땅 등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슈퍼 파워로 조종하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최상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인간 이성으로 내릴 수 있는 필연적 결론이었다. 정작 하나님은 그런 신들은 아예 인정도 하지 않았다. 창세기 1:1 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이어서 해 달 별들을 만드셨다고 선언한다.

물질계에서 인간에게 최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해라도 당신께서 만드신 일개 피조물이니까 절대로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모든 인간들이 자연 현상을 신으로 섬겼던 때에 성경은 이미 3500 년 전에 그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

타조 같이 어리석은 목사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우리말 번역의 뜻이 조금 애매하다. 영어로 “before me”라고 번역되어 있듯이 원어로는 하나님 당신보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순서와 중요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부분이라는 장소적 의미가 강하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는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면, 안 보는 곳에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윗은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에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신다고 고백했지 않는가? (시 139:7,8)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요나는 당시의 땅 끝인 지중해 입구 스페인 끝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 일부러 배 맨 밑바닥에서 잠에

떨어졌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추격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 원인이 불신자인 이방인 선원들로도 요나 때문임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

요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큰데도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솔직히 목사인 저부터도 타조가 모래에 고개를 파묻는 것 같은 꼴로 신앙생활을 한다. 타조가 스스로 눈을 감았으니까 쫓아오는 사자가 안 보이듯이 영적으로 둔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여기고 알게 모르게 세상과 죄에 넘어진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사방 눈 닦고 보아도 없다고 불평만 한다. 자기가 모래에 눈을 파묻고서 말이다. 인간이, 아니 신자가 그런 수준 밖에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와 비슷하게 이 첫 계명의 뜻조차 정확하게 모른다. 심지어 본문 안에 명료하게 설명한 것도 보지 못한다. 십계명을 성경 본문으로 읽고 해석하지 않고 성경 표지 안쪽에 열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된 것만 염두에 두어서 그렇다.

더 중요하게는 제가 입이 아프도록 강조해 여러분의 귀에 못 박힐 정도가 된 대로 앞뒤 문맥에 게시된 진리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절씩 따로 떼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본문 한절씩의 뜻을 모르는 바보는 없다. 또 그렇게 한절씩만 보니까 신약 성도들이 십계명은 자기 신앙생활과 크게 관계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출애굽 시킨 여호와를 믿으라.

본문 2 절에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다. 출애굽 시킨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출애굽 후에 십계명을 주신 뜻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반드시 출애굽이 십계명보다 먼저 있었어야만 했다.

만약에 십계명을 예컨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반발했을 것이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다면 그야말로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적 지식에 불과해진다.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성경 표지 안쪽에 기록한 것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선한 의도였다. 그러나 본문의 2 절은 생략하고 3 절만 있으니 출애굽과 무관해져 버렸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당연히 그분만 믿는 근본적 신앙 수준 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는 분이다. 인간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공기, 물, 음식을 무상으로 공급해주시고 온도, 중력 같은 생활환경을 조성해주시는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다. 각 개인의 존재 삶 인생을 주관하기에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며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한다.

우리 신앙의 실체인데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대단한 신앙이다. 불신자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로 하나님이 없다고 끝까지 거역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동일한 한 하나님을 모신다고 주장하는 타 종교인들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가르치고 실천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또 첫째 계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어 구원했는가? 다시 2 절을 정확히 보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는 구태여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자칫 그것을 보태면 당신을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애굽이라면 불신자 신자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다가 갈라져 구원받은 모세의 기적이다. 모든 십계명 영화도 그것이 클라이맥스다. 그러나 홍해는 출애굽 후의

기적이다. 이미 구원을 준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에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 종이 되게 할 수도 없다. 앞에는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였다. 그래서 바다를 가른 것뿐이다.

수십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었다.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눈 한번만 깜짝하면 된다. 바다를 가른 것은 오히려 애굽을 살리려는 교육지책이었다. 이스라엘만 살리려면 구태여 바다를 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애굽 군대만 죽여도 된다.

막상 이스라엘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맨 땅을 걸어서 건너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애굽 군대는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고 잠시 물러서야 했다. 그전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을 떠올렸어야 했다. 잠시만 이성애 의지하면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고집밖에 부릴 것이 없다. 애굽이 너무 어리석고 완악해서 따라 들어가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은 “애굽 군대에서 구원”해 준 것이지 “애굽의 종 된 집에서의 구원”이 아니었다. 그 구원은 다른 방식이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종에서 구원한 방식은?

그럼 열 재앙으로 종에서 건져내셨는가? 그것도 아니다. 이미 배운 대로 열 재앙은 마지막 열 번째를 제외하고는 고센 땅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애굽을 회개시킬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 참고 또 참으셨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벌도 애굽에 대한 당신의 인내의 한계가 찼고 이래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 죽이겠다는 최후 통보였다.

이스라엘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중에서 풀려났다. 출애굽 당일 밤에 여호와가 보낸 죽음의 사자였던,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임했던,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형벌이 고센을 포함한 애굽 전역을 휩쓸었다. 이스라엘은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문밖에 나오면 너희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는다는 뜻이다.

애굽의 장자만 죽었다고 이스라엘도 장자만 죽인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예고일 뿐이다. 출애굽의 저녁에 하나님의 면전에선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동일하게, 단 하나 다를 바 없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은 뒷전인 채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다. 출애굽 후에도 조금만 불편해도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즉,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애굽의 신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타령만 했지 않는가?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했다는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유일한 차이는 그것을 사전에 통보 받았고 받지 않은 것뿐이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서 구원 받았고 애굽은 애굽이라서 심판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백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께서 성취하셨다. 그러나 단순히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즉 당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살려내어 제사장 나라로 세울 목적으로 그 선조 아브라함을 이때부터 따져 약 오백 년 전에 이미 선택했다. 하나님 당신에 알고 믿고 따르도록 계시하시고 훈련 시켰다. 또 그 믿음을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에게 물려주도록 했다.

아브라함 위로도 노아, 에녹, 셋, 아벨 등 당신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 역사 속에서 소수로 남겨 보호하셨다. 눈에 안 보이지만 당신의 자녀들의 뿌리를 이어가게 했다. 그들의 일생 동안 전후좌우에 성령으로 두르시고 거룩하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의 완전한 성취인 예수 십자가의 개인 구원을 예표한 것이다. 신약 신자 개인이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어 다른 이를 살리듯이 이스라엘더러 열방 앞에 그런 나라로 서라는 뜻이었다.

마귀에게서 벗어난 체험이 있는가?

출애굽 강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라는 한 영웅의 이야기도 또 그들 민족의 역사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애굽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출애굽기만큼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 없기에, 그 진리를 깨달아 자신에게 적용 실천해야 한다.

출애굽의 여호와가 없는 첫 계명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이다. 그분을 대체할 존재는 단 하나도 없으므로 그분만 경배하라는 근본적인 뜻에 머문다. 출애굽의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은 그런 한 분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이끄신다고 온전히 확신하는 바탕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범사에 접근 대응하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그분의 능력만 봤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약 신자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 때문이다.

신자 각자는 애굽에서 탈출한 즉, 마귀의 종 된 집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주신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으로 쓰임 받고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태초 전부터 택했다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 그 얼마나 큰 은혜이며 권능인가?

물론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으로 불려나온 것 같은 초자연적 대면을 다 거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는 얼마든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아니 그런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그분이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시고 당신의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는 체험을 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갈 수 있느냐, 고독 상처 실망 고통 때로 분노 등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름도 빛도 없이 땅 끝에서 현실 형통과는 거리가 먼 채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느냐? 미세한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라도 하나님의 엄숙하고도 진지한 질문을 들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해 기꺼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를 보내달라는 답을 해야 한다.

전임 사역자가 아닌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교회생활 중에 설교, 성경공부, 기도모임 등에서 일회적이든 점진적이든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십자가 앞에 녹아내려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어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극적 전환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전환이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인간적으로 많은 슬픔, 한숨, 실망, 분노, 놀림, 멸시, 환난 등을 겪었으나 다 지나고 나니 성경의 진리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절감해야 한다. 한 순간, 한 순간이, 사건 하나하나가,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신자다. 당연히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겨도 반드시 내 인생을 그분의 안성맞춤의 자리에, 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내가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는 바로 그 위치로 나를 반드시 이끄시고야 만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택함을 입었다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권능과 은혜를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도 알지도 못했듯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나누는 모습으로 매일 그분과 교제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며,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결말은 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세상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특별히 죄를 씻을 수 없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의로 덧입혀져야만 한다. 애굽에서 종 된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와는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십계명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24 시간 365 일 나를 관념하고 계신다면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는가? 때로 그분이 나를 알고 당신의 계획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불편하고 부끄럽고 찢리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그분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는 정답이 이미 다 나왔지 않는가? 최소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상이 정말로 무엇인지 아는가? (출 20:4-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4-6)

종교는 인민의 아편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이전의 저처럼 극렬한 안티 크리스천이 있다. 그 이유가 특이한데 예수쟁이들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 생긴 성과도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해서 성장시킬 생각은 않고 자기 위로와 핑계로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가식적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무산대중을 종교인들이 달콤한 환상과 경건한 명제로 현혹시켜 현실의 고난과 문제들을 망각시키게 만든다는 것이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한다. 무슨 뜻인가? 비록 인간의 눈에 세상의 못 종교들이 아편처럼 보일지라도 기독교는 결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최소 3500 년 전에 확실히 밝혀 놓았다는 것이다. 그 정반대로 인생살이에 많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긴 해도 거의 대부분이 타락한 인간들의 분쟁 때문으로 생긴 것이며 또 그래서 너의 실패, 허물, 죄악에 대해 스스로 핑계 대거나 망각하고 위로할 목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이다.

첫째 계명은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한다.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는 뜻이며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은 실존하지도 않고 신도 아니다. 따라서 둘째 계명의 실질적 의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것보다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으라는 것이다.

우상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새긴 우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 스스로 상상한 것이다. 예컨대 얼굴은 인간인데 몸은 사자에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슈퍼맨이 되고 싶다는 뿌리 깊은 욕망이요, 인간인 주제에 신이 되려고 시도하는 너무나 큰 죄의 본성이다.

둘째는 위로 하늘, 아래의 땅,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 만든 형상이다. 하늘, 땅, 땅 아래는 히브리인들이 세상을 셋으로 구분했던 우주관이다. 물질계 안에 실재하는 어떤 존재라도 그 모양을 본뜨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 생각에 신기하고 장엄하고 강력해 보이는 해와 달 같은 것을 형상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존재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한분만 섬기라는 첫째 계명을 재확인한 셈이다. 피조물은 당연히 신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고대인들은 몰라도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 오늘날의 신자에게는 이 둘째 계명의 의미가 훨씬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인간 상상의 산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십계명처럼 절대적 계시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넘어서 당신을 파악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만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이 그분의 전부를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땅 안에 제한되는 자신의 삶을 복되게 특별히 거룩하게 영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단순히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 진통제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접근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명령

십계명을 주신 형식에도 주목해야 한다. 절대적 명령의 형태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권면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첫째 사명으로 삼는다는 식의 신조나 교리도 아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말라고만 한다. 그 명령에 대해 타협, 변개, 유보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독선적 강압적인 분이라는 뜻은 아니다. 십계명 강해 첫 시간 서론에서 말했듯이 모든 인간이, 정확히 말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준행해야 할 사항이다. 하나님 당신 쪽에서 필요해서 소망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최소의 규범이다. 종교 교리다운 신령하고 심오한 내용이 없다. 나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십계명을 풀어서 더 자세히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라는 것은 둘, 하지 말라는 것이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잘못된 것을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는 식의 고상한 내용이 아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살인, 간음, 도둑, 거짓 증거 같은 것뿐이다.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아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두 가지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신자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이 종교적 계명으로, 효도가 윤리적 규정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둘째 계명 이하 십계명 전부는 항상 또 반드시 첫 계명의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라면 누구나 아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면 첫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아홉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이 첫 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실상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더더욱 절대적 명령의 형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5,6 절)이라고 해서 인간 상상으로 만든 그리스신화에서 신들끼리 서로 연애하고 결혼해 살면서 생기는 인간 식의 질투가 아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경배를 빼앗아 가는 다른 신들에 대한 시기도 아니다. 다른 신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시기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폄하해선 안 된다. 인간을 그만큼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이다.

질투라는 초기감정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질투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고 아무리 한 집 한 방에서 함께 살아도 이미 그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난 것이다. 질투란 무너져 내리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감정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천 대까지 복을 주고 섬기면 삼사 대까지 벌을 준다고 했다.(5,6 절) 아버지가 잘못된 것으로 아들을 벌을 준다는 연좌제가 아니다. 부모의 신앙유산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별히 자식이 잘한 일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에 벌주는 것보다 훨씬 효력이 크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잘못을 벌주는 공의보다 잘한 것을 상주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진리처럼 타당해 보이는 비난

이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거기다 칼 막스나 제 친구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성경적 진리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구체적인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반발할 수 없고 타당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현실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 친구의 경우, 신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 종교의 착각이고 또 그런 착각을 가진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 구태여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왜 주일 교회에 주차할 스페이스가 없다고 남의 가게 앞에 몇 시간 때로 하루 종일 주차해놓아 가게 오는 손님들 차까지 못 대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웃기고 있네!”라고 비아냥대는데도 도무지 대꾸할 말이 없었다.

칼 막스의 비판도 마찬가지다. 신자들이 본문 말씀대로 계명을 잘 지켜 천 대까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은 눈 닦고 봐도 없다. 힘들 때만 교회 가서 눈물콧물 쏟으며 기도 찬양하고 그러다 금방 모두

다 해결 된 양 멀쩡해진다. 그러나 잠시 뿐 다시 걱정한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런 일을 반복하니까 그들 눈에는 기도와 찬양이 마치 아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다. 신자들이 그런 비난에 주눅이 들고 제대로 변증하지 못한다.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둘째 계명만으로도 그런 비방이 말도 안 된다고 확인하는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계명을 준행할 일차 대상이 누구인가? 우상숭배가 만연한 애굽과 가나안의 백성들이 아니다. 방금 출애굽으로 여호와와 큰 권능과 은총을 맞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의 맛을 들였기에 그 습성을 완전히 씻어버리라는 것이다.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 일차적인 뜻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여호와와 자체 신전은 물론 제단도 없다. 그러나 출애굽에 역사 하신 여호와를 회상해보면 우상을 만들어선 안 되고 만들 상상도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직 말씀만으로 역사했지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지 않았다.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는 문을 걸고 안에서 꿈쩍도 못하게 했다. 혹시 결눈질로도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것이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와 대면한 하나님은 이름도 없었다. 하나님 당신을 아예 형상화 할 수 없고 그럴 가능성을 당신께서 스스로 철저히 차단시켰다.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고 노예 살이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지만 그 생활에 사백 년간 타성이 젖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천하려고 출애굽으로 구원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를 아편처럼 찾은 적이 없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애굽의 우상을 그리워했다.

출애굽의 여호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분과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만으로 교통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아가 첫 번째 통로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인간 이성이 깨이고 과학이 발달된 현대의 신자들이 깎아 조각한 상에 절할 리는 만무하다. 교회에서 익히 배운 대로 하나님의 위치와 권능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대표적으로 돈, 권세, 명예, 지성 등인데 그것들이 궁극적인 안전과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에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러나 여기까진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그런 것들이 둘째 계명이 말하는 우상의 실체가 아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먹고 걷고 자는 것 같은 것을 빼고는 반드시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다. 먹는 것도 실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까 다 생각한다. 자동차가 절대로 저절로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운전수가 있는 것과 같다. 상상하여 고안하든 실재하는 것의 형상을 만들든 어떻게 할지 오래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본문은 곧 바로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한다. 무슨 뜻인가? 우상이 너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바로 네가 우상이라고 선포한 셈이다. 십계명 전체는 첫째 둘째 계명에서 보듯이 ‘너희’라는 복수가 아닌 ‘너’라는 단수 즉, 신자 개인에게 주는 절대적 명령이다. 우상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끈질기고 교묘한 우상이 바로 신자 본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위로, 핑계, 심하게는 아편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죄에 찌든 인간이 고안한 우상이나 종교는 그럴 수 있고 또 아무 힘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둘째 계명은 신자 본인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한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우상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기 밖의 우상에 대해선 재물을 필두로 미모 건강 지성 심지어 배우자 자식들에 대해선 아주 조심한다. 그러나 자기가 우상이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엄숙하고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제 친구가 비판한 그 신자의 경우 주일 오전에 남의 가게 앞에 주차하면서 분명히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 와 벌금을 물 수 있고, 가게 주인이 견인해버리면 그 비용도 어마하다는 점을 절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곳에 주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어도 예배에는 참석해야 하고 또 예배시간에 절대 늦을 수 없다는 뜻이다. 틀림없이 교회에 중직을 맡은 자다. 그 사람 속에 품고 있는 종교적 열성이 우상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나만 안락하고 사치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 죄이자 우상임을 알기에 넘어질까 다들 조심한다. 이처럼 흔히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잘 모른다.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지난 일주간의 죄책감을 씻고 평강을 얻어야겠다는 것 자체는 선한 것이며 신자라면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고 교회 밖에서 종교를 아편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23 의 가르침을 대언한 것뿐이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주일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남의 가게 앞에 영업 방해가 되도록 주차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예배를 중지하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영업 방해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차를 멀리 옮긴 후에) 예배를 드려라.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얼마나 자주 부부끼리 다투고 자식에게 짜증과 화를 내는가? 교회에서 만날 꼴 보기 싫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 상처 받고 무시당한 일이 생각나서 이런 저런 시험에도 들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더더욱 주일예배를 더 경건하고 신령하게 드려야 한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후에는 형제와 서로 용서하며 화목해야 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는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즉, 예배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이 된다. 불신자의 원망을 들으면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며 또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셋째 넷째 계명까지 위반한 꼴이다.

내속의 우상의 실체는?

하나님은 물론 남을 위하는 것조차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또 아직도 연약하고 욕심이 많고 죄의 본성이 살아 있는 우리가 우리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십계명의 나머지 아홉 계명을, 특별히 첫 계명을 따르는 일을 자꾸 교묘하게 방해하고 주저하게 하고 잊게 만들고 심지어 반대편으로 이끄는 뭔가가 내 속에 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노 선 같은 것이 우상이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려 들면 꼭 뒤통수를 잡아끄는 것이 있다. 다른 것들은 비교적 쉽게 포기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봐도 이상하리만치 이해가 안 되지만 죽어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하는 것이 있다. 또 양보 못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겪어서 후회하고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여럿 최소한 한두 개는 갖고 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의 우상은 무엇이였겠는가? 바로 외아들 이삭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백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문자 그대로 자기 몸에서 난 약속의 외아들이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말년에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이 사건은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어린 양인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 한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따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미리 준비해놓았지만 분명히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었다.

본문의 둘째 계명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아브라함을 가로막는 최후의 것 최고 강력한 것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삭이지 않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버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위해서 혹은 대신해서 죽으라고 명했다면 큰 망설임 없이 죽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선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라는 것보다 더 심한 명령이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너 자신을 따를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아들의 생명을 걸고서 결정하라,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명한 것이다. 너를 따르는 순간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에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위치와 권능을 대체한다고 믿고 섬긴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이삭이 주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주는 그것보다 분명히 더 크다고 여긴 적은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서 삶의 만족을 찾은 것이며 그것이 우상이 된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골고다 십자가를 예표 한다고 말씀드렸다. 하나님 쪽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지 않는가?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그분의 의로 영생을 얻었다.

당연히 신자의 처음과 끝은 오직 예수여야 하고 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는 절대로 아편은 물론 종교도 아니다. 살아 있는 생명이자 하루하루의 실제적인 삶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인생은 버려나가는 과정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미련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과정이요 싸움이 인생이다. 아직 창창하게 젊으신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지금부터 적용되고 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모두 천재 같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천하를 얻은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쯤 슬슬 자식에 대해 실망하고 짜증 분노가 나기 시작하고 그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기 시작했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의식은 못해도 서서히 이 땅의 것을 버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불신자들 중에도 의로운 자들은 재물, 권세, 명예 등이 결코 인생의 참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종교적 용어로 치면 우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나님 앞은 절대 아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버킷 리스트다. 요로(yolo-You only live once)인생이라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 성취하고 나면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든 버킷리스트나 요로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 진리가 삶의 근원이 됨을 부인하는 자들, 십계명 그 중에서도 첫 계명조차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인생결산서다.

신자의 경우 자기 속에 있는 우상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신앙인가? 기도와 말씀에 등한히 한 것인가? 제발 종교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기 바란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 신자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바로 자존심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지 않는가? 모두가 그 죄의 본성에 여전히 묶여 있지 않는가?

우리 모두 매일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자식을 야단치거나 부부 싸움하는 원인도 실은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자식과 내 마누라라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여기기에 잘못된 것 있으면 일일이 지적하고 야단쳐서 고치려 든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우상으로 아직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교회도 최고 큰 일류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여긴다. 사람이 많이 몰려 주차할 스페이스가 없어서 남의 가게 앞에 불법 주차한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 불법주차 자주 했는데 단속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이 내 차만 보지 못하게 눈까지 가려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식으로 간증까지 하고 다닌다. 그런 헛소리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천국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보장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한 사랑을 실현한 사건이다. 도무지 그 사랑과 비교할 존재와 사건은 없다.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능력이다. 그 십자가에 앞에선 세상의 어떤 고상하고 경건한 도덕 철학 교육 종교라도 다 우상일 뿐이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다. 자기가 우상을 삼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깨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고백 앞에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했고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열거했다. 자신의 자존심을 철두철미 부셨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할 내용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여 소명을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게 만드는 내속에 남아 있는 최후의 것은 없는가? 둘째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는가? 자신의 도덕 믿음 의지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가능할 것인가를 말이다.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 20:7)

한국인들은 부모님의 성함을 아예 입에 담지 않는다. 꼭 불러야 할 경우는 박(朴)자 진(辰)자 호(浩)자라고 한 자씩 따로 말한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선 그보다 더한 예의를 보였다. 구약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쳐 자세를 바로 잡고 붓을 물에 다시 빨아서 적었다. 소리 내어 읽을 때는 그 단어 전부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아예 바꿔서 읽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멸시 비방하며 부르지 말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불신자라도 천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만은 막 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예의와 존경을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미국 아이들은 부모를 성도 안 붙이고 이름(first name)으로 부른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의도 없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부모는 자식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낳아서 이 땅에 실존케 해준 뿌리일 뿐 아니라 보호 양육 지도해준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는 뜻이다. 셋째 계명도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인생에 베푼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그분을 감사 찬양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는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하느님 이름의 비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한 직후에 당연히 '하느님'으로 부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놀랐고 이상했으며 솔직히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다. 절대자나 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상징이나 은유의 의미도 없어서 거룩하고 신령한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주변 사람에게 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지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기독교의 신의 이름이 당연히 그런가보다 여겼지 그런 의심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했던 강도사님께 그 뜻을 듣고는 그 이름이 아주 합당하고 참 좋다고 깨달았다. 신학을 하고 무엇보다 삼십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하늘에 계시며 하늘보다 더 큰 신령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이 땅의 온갖 허물 탐욕 분쟁 죄악으로 찌든 인간과는 전혀 다르며 이 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고상한 존재다. 물질계가 아닌 영계에 거룩하게 좌정해 계신 분이다.

당연히 절대자의 첫째가는 중요하고도 아주 좋은 의미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하늘에만 계시면 이 땅과는 무관하다. 신학적 용어로 초월자에 머문다. 이 땅의 인생사를 주관하지 않으면 사실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공교롭게도 하느님이라 부르는 종교들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이 땅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라고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 만들고 나서 피조세계가 저절로 작동되도록 운행법칙을 부여한 후에 손을 놓고 있다고 믿는다.

자연히 모든 생물은 진화의 법칙에 종속된다고 믿는다. 인간은 그 진화의 정점에 있으므로 이 땅을 주관할 수 있다.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가 인간을 아주 똑똑하고 선하게 진화되도록 했기에 비록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시행착오는 겪을지라도 끊임없이 개선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끼리 유토피아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필연적으로 구원론도 행위구원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 땅에 절대자는 부재하기에 인간의 전적 책임 하에 맡겨져 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심사하여 성적을 매기고 우등생은 구원을

얻고 열등생은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각 종교가 가르치는 윤리적 종교적 계명들을 착실히 수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다. 어떤 인생사도 주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이기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공경 효도하는 것이다. 남의 부모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 인간의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 삶과 인생에 어떤 의미도 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경배를 받을 근거도 자격도 없다.

하나님 이름의 비밀

기독교의 개신교만, 정확히 말해 한국의 개신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성경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절대자의 명칭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살렸다. 영어로는 'God' 혹은 'Lord'로, 일본어로는 가미사마(神様)인데 우리말로로는 '신님'이라는 의미다. 하나님을 영어로 바꾸면 the Only One (Being)이 되는데 부르기도 힘들고 절대자라는 의미도 없어 어색하지 않는가?

한국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1883년 캐나다 선교사 존 로스가 번역한 누가복음에, 당시는 아직 성경 전권이 번역되기 전이라,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또 1800년대에는 식자나 양반은 한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자만 사용했다. 한글은 천민이나 여자가 사용하는 글이라고 천시 받았다. 당연히 문법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아래 아(.)자를 많이 사용했다.

당시 사람들도 신적 절대자의 존재는 인정하고 또 '하느님'으로 불렀던 것 같다. 캐나다인 선교사의 귀에는 '아'인지 '으'인지 제대로 분간이 안 되어 처음에는 '하'자 다음 니은 아래에 아래 '아'를 붙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바꾼 것 같다. 그러다 문법체계가 정립되면서 '아래 아'를 전부 아로 바꿀 때에 하나님으로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개신교에선 그 뜻이 아주 성경적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우선 유일무이(唯一無二)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다. 절대자, 신, 창조주가 여럿일 수는 없다. 능력과 지성에서 그분과 겨룰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생물은. 당연히 인간을 포함하여 그 활동은 물론 생존도 자기 외부의 다른 것들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외부의 여건들은 그 생물과 인간이 실존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미리 마련되어 있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생물은 자신의 출생과 죽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만약 운행하는 법칙만 있다고 절대자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인간의 수명도 모두가 혹은 거의 같아야만 한다. 법칙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없어야 하나 현실은 갓난아이가 간암으로 죽기도 한다. 하나님에겐 출생과 죽음 자체가 아예 해당되지 않고 영원히 실존한다.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름이 없는 하나님

이미 배운 대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이름을 무엇이라고 동족에게 말해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가르쳐준 이름은 영어로 치면 "I am" 주어와 Be 동사 둘로만 대답했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다"가 된다.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인가? 안 가르쳐 준 것인가? 가르쳐 준 것도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이름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성경의 절대자는 이름이 없는 유일한 존재다.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된다.

히브리인의 사고로는 이름은 특성과 인격과 삶 전체를 대변한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이스라엘은 당신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부쳐주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이든 붙여지는 순간 그 한 가지 특성에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한해선 수천 조분의 일의 설명도 안 된다.

출애굽 직후에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 그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렀는가? “여호와 닛시”라고 했고 직역하면 “내다. 깃발”이 된다. 대적과의 전투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대적을 사용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 점을 도무지 설명하지 못한다. 여호와 닛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붙여주지만 하나님에게 부모가 없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신 그분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느끼는 대로 여러 이름들을 붙여서 부를 수밖에 없으나 그분의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름이 없다. 단지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실 뿐이다. 그분이 직접 계시하시는 것 외에는 당신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 권이다. 그 중에는 사탄을 활용해서라도 욕의 믿음 성장을 위해 최악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극악무도하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살육한 니느웨 백성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를 통괄하시고 우주를 아우르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자신을 ‘내다’라는 한마디 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폐가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표현할 더 좋은 방도는 없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금은 야훼라는 이름이 입에 익었지만 성경이 기록된 초기에는 ‘내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감과 의미도 이상하고 읽기도 어색해서 아도나이로 바뀌서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어 성경만이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데 그분 당신께서 당신을 계시한 의미에 가장 근접한 명칭이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신다. 입술의 말과 심령의 생각까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심어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초월만 하신 분이 아니다. 안 계신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초월자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초월자이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까지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 나아가 승천하신 후에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어 영원히 함께하실 수 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정확한 의미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 히브리 원어 "싸브"는 악하게 교활하게 거짓되게 부른다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in vain 으로 번역되었듯이 헛되다는 의미가 강하다. 원어로 텅텅 빈, 아무 것도 없는, 어떤 가치나 의미도 없는 말과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라는 것보다 헛되이 찾지 말라는 뜻이다. 그분을 절대로 무익하고 의미 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전도하다 보면 흔히 듣는 반발이 있다. 세상에 모순과 고난과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는 기독교의 신은 방관자요 불공평한 존재니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초월해 있으며 이 땅에 손을 놓고 있는 신이 옳으며 또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해준다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

이 땅과 연관이 없는 신이라면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실제로 그런 종교인들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하는 지극히 위급한 경우를 빼고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다. 대신에 개신교인들이 일상의 사소한 일을 두고 미주알고주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해도 못하고 이상하게 여긴다. 스스로 노력하기는 포기하는 나태하고 비겁하다고 비방한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즉, 헛되게 그분을 부르는 것의 대표다.

십계명은 그 구조에도 의미가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오늘의 계명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그 순서에도 주목해야 한다. 바로 앞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해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다. 스스로 만든 신은 그 이름이 아무리 고상해도 실재(實在)하지 않는다. 아예 능력이 없다.

이 경우에 붙이기는 너무 아름다운 시(詩)이고 그 경우와 의미도 다르지만 김소월시인의 초혼(招魂)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부르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헛되게 즉, 망령되이 그분을 부르는 것이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알 선지자 450 명이 하루 종일 전심과 진심을 다해 불러도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는 몸에 상처까지 내었다. 피를 보인 것은 자기들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최고의 치성까지 바쳤지만 끝내 감감 무소식이었다. 문자 그대로 부르다, 부르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이름이었다. 바알 즉, 응답할 신 자체가 없는데 응답될 리가 없다.

여호와와는 절대로 그런 신이 아니다. 엘리야 혼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도저히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없는 물에 흠뻑 적신 나무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다. 삼 년간의 가뭄도 작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나더니 순식간에 뭉게구름으로 바뀌고 홍수가 날 정도로 해갈시켰다.

우상숭배야말로 헛되게 부르는 것의 대표다. 결국 셋째 계명은 둘째 계명을 풀어 설명한 것이고 둘째 계명은 지난주 설명 드린 대로 첫째 계명을 풀어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주인으로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다.

그분이 객관적으로 초월해 계신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말로 바로 너에게 오직 한 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다'라는 의미로 그분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찾는 것이다. 친아들에게 '내다'라는 아버지의 한마디 말 안에 모든 사랑과 권능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에 아들이 안심하듯이 말이다.

정작 주목할 셋째 계명의 후반부

우린 어떠한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할 리도 없다. 지금껏 말씀드린 초월자이자 동시에 내재자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도 정확히 안다.

그러나 그분을 부르다, 부르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은 없는가? 고난 위에 고난이 겹치다보니 솔직히 하나님이 침묵 외면 부재한 것 같은 적이 있지 않는가? 나중에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 의심과 불만까지 생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또 기도에도 응답 받은 적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응답 받지 못한 회수가 훨씬 많다.

그래서 습관적 형식적 신앙으로 변질 된지 이미 오래 아닌가? 주일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승리가 없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잠시 평강을 찾으나 금방 또 걱정이 겹친다. 그럼 경건히 예배드린 것, 간절히 기도한 것, 뜨겁게 찬양한 것, 모두가 허사 아닌가? 하나님을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즉, 망령되게 부른 것 아닌가?

왜 이리 오래 침묵하시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의심과 불만이 많아진다. 마치 하늘에 멀리 떨어져서 세상 특별히 내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하느님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지 않는가?

이 셋째 계명은 후반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다. 인간의 믿음이나 판단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지 않는가?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일예배에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목사 설교를 듣고 찢림이 생겨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까지다.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고 여긴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또 마지막의 이것만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 양보 못하고 남은 것마저 깨트리려고 연단을 주신다.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리 나만 힘들게 하시는지 의심 불평하며 기도해봐야 헛되다. 도 바로 그래서 고난이 더 겹쳤는데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자기 욕심과 세상 죄악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성장하기는커녕 자꾸 퇴보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일예배 드리는 것은 불신자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예배 중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이 없으면 신자로 행할 바를 다 한 것이 아니다.

죄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죄가 아니지만 죄라는 것이다.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주도 지난주와 똑 같은 모습이라면 교회 마당만 밟고 간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으로 죄라고 이 셋째 계명이 선언하고 있다.

신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신자가 마지막까지 놓거나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내 속에 남아 있는 자존심이 아니다. 십계명의 대전제는 출애굽 하신 여호와와의 절대적 명령이라는 것이다. 애굽의 종 살이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신약 성도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며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끝이 났다고 하는 순간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의 승리를 하셨다. 하나님이 와도 도무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때에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는가? 또 바로 그 분이 성령으로 신자에게 내주하고 있다. 신자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미 소지하고 있다.

신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어 공사역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이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과 똑 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당신은 천국보좌에 좌정해 계시어 안 보이실지라도 당신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자의 내면에서 동일하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멸시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며 또 때로는 기뻐하셨다. 지금 성령이 신자에게 행하고 있는 일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신자에게는 유익이 되는 자리에 기어이 이끄신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이 텅텅 빈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들릴 때가 있다. 현실의 고난이 너무 겹쳐 죽기 일보 직전 같은 바로 그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더 크게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아가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지난주에 신자의 인생은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해 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과 맞바꾸는 씨름이었다. 내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채울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그 일차적 이유다.

또 내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신자 자신의 발전과 진전이 안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껏 신앙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지나고 나면 내 길과 생각이, 결코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이었고 또 내 욕심이 개입된 것도 아님에도,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훨씬 더 선하고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옳고 더 풍성합니다, 아니 반드시 옳습니다.”라는 단계에까지 도달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안에 하나씩 내 것을 버려야 하고 또 버려지는 것이다. 그런 과정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다고 인정했기에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그를 깨트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모른다.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멀리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그분의 능력에 저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선 안 된다. 내가 버림으로써 더 큰 은혜로 승리로 이끄셨던 체험을 통해 저절로 나오는 진정한 고백과 함께 기꺼이 그래야 한다.

하나님은 초월자로만 머무를 수 없다.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다. 그런 분을 내 생각과 계획 속에 묶어 제한하려는 끈질긴 습성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만 붙들리면 왜 이 일을 안 해주시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분을 내 길과 생각으로 묶기 쉽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죄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믿음이 무엇인가? 광대하신 그분의 생각에 맞추어 내 생각을 키워나가는 씨름이다.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위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여전히 주님의 제단에 나올 때에 눈물과 한숨을 뿌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어야 한다. 그럼 기쁨의 꽃다발을 듬뿍 안고 일어설 수 있다.

터널 끝이 안 보일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있다. 터널 끝을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럼 누구라도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 터널이 없다고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신자에겐 터널의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깜짝 놀랄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출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신자 된 가장 확실한 표식

십계명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한 도덕법으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반드시 준행해야 할 최소의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오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유대교와 기독교 특유의 종교 규례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일부 기독교인들마저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고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로 대체되었으므로 교회가 주일성수를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수 십자가 구원을 강조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구약 성경이 안식일에 관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탓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강조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주일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치고 반드시 지키도록 독려해야 한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거룩은 다 배워서 아는 대로 윤리적으로 최고 선(善)한 경지가 아니다. 하나님에 따로 구별하여 떼어내어서 당신에게 속하게 만든 상태다.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명했다.(출 3:5) 척박한 모래와 바위들과 가시덤불뿐인 땅이 거룩하기는커녕 전혀 아름답지도 않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에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 외면 무지한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상은 주일에 여행 같은 취미활동이나 유흥으로 말 그대로 하루를 편안하게 휴식하며 보낸다. 신자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한다. 종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다 죄송하지만 돈까지 바쳐야 한다. 이러는 자체가 벌써 세상과 너무 다른 것으로 거룩하다.

물론 주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고, 반대로 잘 지키면 큰 상을 받는다고 협박 내지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그런 기복적인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장로니까 집사니까 심지어 목사니까 의무적 형식적으로 억지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즉, 아무 의미와 유익 없이 헛되게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죄 없다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히브리 어법 상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죄라고 선언한 것이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기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 주일예배가 기다려지는가? 빨리 교회로 가고 싶은가? 몸이 아픈 이유 빼고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거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 기도하고 성도끼리 교제를 하면 일주일간 쌓였던 육신적 피로는 몰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완전히 풀리는가?

목사의 설교로 가슴이 찢려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재물이나 육신의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에 머리로 수긍이 되지만 고난이 겹치고 있어 가슴에는 안 와 닿을 수도 있다. 피곤해서 졸 수 있고 매번 설교 내용이 뻔하고 지루해 주보에 괜히 낙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슴을 한두 번 쿡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의 언변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쁘다면 주일예배를 거룩하게 드린 것이다.

이는 불신자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세상에서 최고로 지겹고 괴로운 일이 불신자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서 선동하는 것처럼 들린다. 사용하는 단어의 뜻도 생경하다. 그 선동에 아멘, 아멘하고 신자들이 맞장구치는 것을

보노라면 너무 어리석고 불쌍해 보여 속으로 찢찢 혀를 차게 된다. 저는 심지어 예의도 없이 설교하는 도중에 박차고 일어나 나온 적도 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 십자가로 깨어진 후에는, 아니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마음 문만 조금 열어도 교리를 공부하기도 전에 설교가 쑥쑥 머리에 들어오고 이해가 된다. 때로는 남들 모르게 속으로 눈물을 흘린다. 제가 교회에 출석하여 처음 들은 설교가 공관복음도 아닌 그 어려운 요한복음이었다. 그것도 한국말을 가장 어렵게 구사한다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도 6 개월을 울면서 교회를 다녔다.

제가 그렇게 계획 의도하기는커녕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으키신 신령한 변화였다. 그분이 저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제단 앞에 내 심령을 엮드리게 만드셨던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체질과 심성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루만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죄의 본성이 살아나고 세상을 향한 옛 습성이 꿈틀대기도 한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갔다 오면 집에서 쉬는 것보다 수백 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전에 억지로 추슬러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고도 강권적인 인도에 따라,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께 찬양 예배드렸기 때문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누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신자가 함께 참여한 결과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 14:17) 집에서 쉰다고 육신적 피로는 몰라도 정신적 영적 스트레스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다.

주일에배는 종교적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다. 교회에서 권면 교육할 차원도 아니다. 신구약 시대, 장소, 인종, 나라 구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갈급한 자들은 그분을 경배하게 마련이다. 특별히 성령이 내주한 신자들로선 하나님에게 내어 보이는 자연스런 반응일 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삶이 예배가 되고 24 시간 7 일 내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들은 분명히 거룩하게 지켰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화장을 하면 안 되었고, 여행은 5 리 이상 가면 안 되었고, 밀밭을 지날 때에 이삭을 따서 먹으면 안 되는 등등 유별나도록 이방족속들과는 다르게 즉, 거룩하게 지켰다.

모세의 율법에는 없지만 어떻게 하든 더욱 거룩하게 지키려고 세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율법을,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탓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한 결과다. 그 규정들을 제정한 의도는 아주 선했다.

본 계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셨고(10 절) 또 하루를 쉬셨다고 했다.(11 절) 하나님이 쉬신다면 당신의 백성들도 당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 하나님은 첫 6 일간 창조를 마치고 7 일 째에 쉬셨기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 유별나게 병자들을 많이 치료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병자를 치유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분노하다니 너무하다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비방할 계제가 아니다. 그들이 병자를 붙잡히 여기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치료하느냐고 따진 것이다.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는 거의 평생의 불치병이거나 나면서 불구자들이었다. 물론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해주셨다. 그럼에도 불치병이나 불구자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꼭 그날에 안 고쳐주어도 하루 정도 늦춘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도 양이 구렁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주지 않느냐는 주님의 반문도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잘못되었다니 이상하겠지만 양은 그날 건져 주지 않으면 죽는다. 불치병자와 불구자는 내일 이 시간 이 장소로 모여서 치유 집회를 하자고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럼 유대인들과 구태여 분쟁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로 유대인에게 시비를 거신 예수님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을 도발한 것이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 거기다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선언했다.(막 2:27) 한 술 더 떠서 인자가 – 사람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수님 본인을 말함 –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다. 당신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한 자요 안식일에 경배를 받을 자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붙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너희가 안식일을 이방 종교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좋은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점을 고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고 종교적 허례허식이 많아서 짐이 되었다고 지적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7 일째 쉬셨다는 창세기 2:3 과 그 구절을 인용한 이 넷째 계명의 뜻부터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는 창조로 만드시던 일을 마치고, 또 본 계명도 만들고 나서 쉬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7 일째에 완전히 손을 놓고 쉰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역만 완료되었다는 뜻이다.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운행되도록 법칙을 제정하시고 직접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일을 바로 그날부터 성실히 시작하셨다.

하나님에게 쉰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하나님이 손을 놓고 쉬어버리면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태양 빛이 어두워져서 인간은 순식간에 멸절된다. 베드로후서 3:10 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인간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예언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가? 주의 날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 때에 하늘은 물러간다.

창조주 하나님은 7 일째에 더 성실히 일하셨다.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 당신의 창조 사역을 마친 것에 흡족해 하시며 당신의 마음에 쉼을 얻은 것이다.

이 날에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 7 일째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한 자가 있다. 누구인가? 바로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였다. 인간의 이 땅에서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주려고 창조한 것이다.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안식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관해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또 그럼으로써 스스로 분쟁을 촉발한 셈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히 좋고 그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리는지 여부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있는지 따진 것이다.

안식일 논쟁에 관한 신학적 책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성경책이 있다. 무슨 책인지 아는가? 바로 히브리서다. 유대인들의 선조가 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다고 선언한 책이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히브리서를 '제사'보다는 '안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꼭 다시 읽어보라.

히브리서 9, 10 장에는 동물 제사로는 속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선언한다. 왜 그런가? 그 두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인간 제물로 바쳐져서인가? 물론 그것이 첫째 차이이지만 더 쉽고 정확한 차이를 아셔야 한다.

구약율법의 제사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제물을 바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했다. 레위기가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의 절차와 종류를 규정한 까닭은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와 성격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미처 알지 못하고 짓는 죄와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제사를 일일이 드리지 못해 용서 받지 못한 죄들도 있다. 이런 죄들은 어떻게 용서 받았는가?

일 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백성의 그 모든 죄들을 양 두 마리에게 안수하며 전가(轉嫁)했다. 그 중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로 언약궤 위 속죄소에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죄의 근원인 사탄이 거주하는 광야로 되돌려 보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죄의 효과는 일 년밖에 못 간다는 것이다. 매년 동일한 제사를 지내야 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사의 유효기간 즉, 종교적 규례의 불완전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구약 제사는 행동과 말로 범죄 할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용서를 받으려면 아무리 레위기 규정대로 엄격히 지켜도 평생에 지은 죄를 도무지 해결할 방도는 없다. 거기다 아직 생각으로 지은 죄는 구약 율법에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죄는 어떻게 용서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따졌다. 주님은 그 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고 답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더 크고 많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범한 행동 때문에 죄인이 된다면 그 죄들을 일일이 하나씩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영혼이 썩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를 하나씩 용서 받는 방식으로는 안식을 절대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 창조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실제로 존재했던 유토피아인 에덴동산에서 먹고 마실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풍요로웠다. 정말로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맘껏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다. 아니 하나님 밖으로 스스로 뛰어나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절로 두렵고 부끄러워졌다.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제거하자 그 영혼이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겼다. 그로 인해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그 후 모든 세대의 인간은 속에서 저절로 죄가 솟아나왔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 뿐이었고 인간은 죄의 덩어리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당신께서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제물로 바쳐졌다. 인간의 죄를 일일이 따질 수도 없다. 생각 아니 그 영혼이 썩었는데 정죄 야단 교육 훈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 논쟁을 의도적으로 먼저 시작하신 원래의 뜻과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당신을 매달게 하려는 계획대로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셨다.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죄인인 우리와 의인인 당신을 맞교환했다.

주님은 율법과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켰기에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역 비난까지 한 죄인 중의 괴수인 저나 바울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이라 죄를 짓기에 사람 전체를 새롭게 살리셨다. 또 그 사람 전부를 살렸기에 과거에 지은 윤리적 죄까지 자연히 용서받는 것이다. 예수만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자 예수 외에는 안식이 없다.

안식일에 불치병자와 불구자를 치유해준 것도 그들에게 안식일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평생을 두고 육체적 안식은 물론 당시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로 취급되었기에 정신적 안식도 누릴 수 없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아무리 안식일 예배를 매주 드려도 한 번도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 주님이 그들을 안식일에 치유해줌으로써 비로소 육체는 물론 영혼의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든 인간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이유는 당장에 생명을 살려야하기 때문인데 이들 불치병과 불구자들도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기 위해 불치와 불구를 고쳐준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엄숙히 경고하고 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으나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한다.(히 4: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공짜로 베풀어질 참 안식에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히 4:2) 탓이라고 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이나 동물 제사는 가장 성실히 지켰을 것이며 유대 사회에선 최고 의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 또 마르틴 루터는 하루 종일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평강이 들어서 일어섰으나 그 순간 지금껏 회개한 모든 죄보다 더 크고 추한 죄가 떠올랐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참 안식을 얻어야 한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려야만 한다.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인간은 그 상태로 평생 가도 갈급하고 허망하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참 안식이 없다.

아주 심각한 말씀

지금 제가 사실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중이다. 주일예배에 설교 듣고 기도 찬양 성도간의 교제도 하며 지난주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새로 시작하자고 다짐하는 것은 너무 귀하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그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정말로 참 안식을 얻었는가? 새로운 한 주의 삶을 그 안식 가운데 실현할 자신이 있는가?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 내 존재 전체가 완전히 이미 바뀐 새로운 신분, 위치, 소속 등에 대해 실감하는가?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 삶의 바탕에서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가? 주일예배 마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거룩하게 드렸는지 점검해봐야 할 기준이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범한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나 종교적으로 잘못된 의식 관습 하나하나 때문에 내 안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빨리 안 되니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예배 드리며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더니 조금 안도감이

들었는데 교회 문밖에 나가자 말자 또 걱정이 덮치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 봉사했으니 이제 복주시겠지 최소한 고난은 끝내주시겠지 정도만 기대하는 것 아닌가?

마르틴 루터가 예수 십자가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하라고 종교개혁을 했다. 그런데 작금 구교는 사람인 신부 앞에서 자기 지은 죄를 일일이 속죄 받아야 하고, 신교는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그러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래도 일 년 간은 유효했는데 우리의 제사는 그 효력이 일주일 밖에 가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회개하는 심정은 순수하고 그 의도도 선하다. 또 성화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마다 일일이 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 자체로 그쳐선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수고와 짐이 되어버린다. 회개만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배때 마다 십자가에서 이미 맞바꾸어진 의인이라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20 에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다. 죄 덩어리였던 이전의 죄인은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내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 해계시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는가?

신자는 더더욱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매주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만으로 신앙생활을 끝낼 수는 더더욱 없다. 신자들이 안식이 없는 까닭은 이미 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잊고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를 모른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참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데스 바네야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다. 아무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왜소하고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 거인 족속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출애굽의 그 큰 이적들을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마저 작게 보였던 것이다.

주일예배가 지난주의 도덕적 잘못과 종교적 허물을 반성하고 스스로 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외롭고 단조로운 이민생활의 적적함을 사람들을 만나 푸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 안식은 결코 없다. 바울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자기가 받은 소명을 성실히 실행해야 하고 그럼 또 그분이 그에게 생명의 활력을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주겠는가?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 얻어갈 참 안식이다.

효도하면 장수하는가?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되는 구절들이 많기에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한다. 오늘 살펴보려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는데 사실인가?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교훈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되는가?

이 계명이야말로 문자적으로 이해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둘이다. 우선 부모님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음식은 골고루 균형 있게 먹으라,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스트레스는 술 담배로 풀지 말고 취미 활동을 한두 개 가져라, 등등의 말씀을 하신다. 그대로 순종한다면 장수는 보장된다.

둘째로 본문의 생명이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인도하시는 삶 전체를 말한다.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대체로 다른 이들에게도 각듯이 잘 대한다. 또 자신의 일상사에도 성실해서 스스로 생업을 잘 유지하고 그런 이를 하나님도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계명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뤄진다고 해서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순한 가르침으로 여겨선 안 된다. 더 깊이 따져볼 내용이 많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위대하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위대하다. 자식이 몰라줘도 또 알아주기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다 베푼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경험과 지혜와 그로 인해 얻게 된 멀리 보는 안목으로 지도한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자식은 청개구리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정말 적절한 표현으로 통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특별히 친구의 말은 따르면서 유독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듣는다. 부모로선 그러면

실패로 끝날 결과가 뻔하게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막상 당사자는 아무 것도 모른다. 허나 부모는 이미 자신이 겪어봤기에 그 실패의 원인과 과정은 물론 그로 인한 고통이 어떤지 잘 알기에 자식보다 더 아프고 안타깝다.

물론 아버지가 아파트 수위로 수입이 적어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주는데도 아들이 서울대 수석입학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다. 이는 아주 특별한 예외일 뿐으로 죄송하지만 가난한 환경이 큰 동기를 부여한 측면을 무시 못 한다.

부모는 위대한데 자식은 청개구리인 모습은 이 땅에 인간이 생존하는 한 지속되는 현상이다. 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장소와 시대의 구분 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간혹 친 자녀도 학대하는 부모가 있지만 유전적 환경적 결함이 그 원인으로 이 또한 예외일 뿐이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교육, 훈련, 의지적 노력이 전혀 필요 없이 자동으로 행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善)이다. 다른 선들은 아무리 사소해도 막상 행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솔직히 말해 신자 부모조차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한두 명의 자녀뿐이라 거의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 있다.

모든 자식이 부모와 벗어나는 것도 특별한 양심의 가책 없이 거의 자동으로 행해진다. 하나님도 거역하고 자기를 그분 위에 둔 타락한 본성을 지녔는데 인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모든 것을 자기가 요구하기도 전에 엄마가 다 마련해주니 더욱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

물론 자식도 피붙이인 부모를 본성적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선 내 자식이지만 원수 같을 때가 많다. 그러다 자식이 언제 정신이 드는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부모 입장이 된 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부터 자기 새끼들 돌보고 사랑하는데 바빠 부모에게 신경 쓸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식들을 다 결혼 시키고 안정 되는 것을 보고 여유가 생겨 이젠 부모를 돌봐야지 하면 부모는 벌써 늙어서 치매 같은 증병에 걸려 있다. 이젠 거꾸로 부모가 원수 같이 여겨진다.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셔서 땅을 치고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침 지난 주일이 제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형님도 돌아가셨기에 집안의 제일 어른이 된 큰 누님한테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조화도 못 보내고 매번 죄송하며 돌아가신 후에도 큰 불효를 한다는 카톡을 보냈다. 칠순이 넘은 누님께로 돌아온 답이 이랬다. 우리도 늙어서 자기 몸뚱이 하나 추스르기 바쁘니까 돌아가신 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효도라고 말이다.

아직도 창창한 여러분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인생의 결국은 그렇다. 누차 강조하지만 가뜩이나 짧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해본다. 본성적으로 힘 안 들이고도 가능한 피붙이에 대한 사랑을, 그 중에서도 효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효도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 적용해야 한다. 그 첫째 의미가 이처럼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의 영적 실체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지 분명히 자각 인식하여서 겸손해지라는 것이다.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에 두라.

본문의 '공경하라'는 히브리 원어 카베트는 영광(glory)의 동사 명령형이다. 구약성경에선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었다. 유교에선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 셋을 동격에 두고 그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부모는 임금과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위치에 두라는 것이다.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대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영어 성경은 영예롭게, 존경스럽게 여긴다는 뜻으로 조금 격을 낮춰서 'honour'라고 번역했다. 이 계명에서 공경하라는 것이 여행 보내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용돈 드리는 효도의 차원이 아니다. 진심으로 부모에게 하나님과 상응하는 의미와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모를 숭배하라는 뜻은 아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를 인식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식이 전혀 없다. 부모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부, 증조부는 고조부가 주신 것일 뿐이다. 계속 올라가면 원숭이와 아메바를 거쳐 결국은 산소와 수소 원자 같은 물질이다. 요컨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진화로 맺어진 것뿐이다. 둘 다 물질로 시작해 물질로 끝나는 관계다.

따라서 불신 인간사회의 최고 덕목은 부모 효도다. 부모 위에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근거도 오직 부모의 공이며 또 그 부모를 있게 한 조상의 덕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털끝만치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를 금하는 개신교와 그 하나님을 싫어한다.

인류 철학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한 혈통에서 나게 했다고 선포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똑 같다는 것이다. 또 인생의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그분이 정하셨는데 당신을 더듬어서라도 찾게 할 목적이라고 했다. 부모와 조부를 따져서 올라가면 자신의 궁극적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점을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 이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힘을 입어 기동하는 존재라고 선언했다.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혹은 조상 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짜로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부모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제발 깨달으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신자 부모만 공경하라.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과 상응되게 공경하려면 부모부터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에 영적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자녀를 당신이 낳은 육신적 자녀로만 알고 자기 욕심과 감정대로 키워선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자녀로 양육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계명은 신자인 자녀가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부모는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가꿔나가는 부모라는 뜻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그렇다고 불신자 부모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럴수록 그 부모가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며 전도해야 한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을 실현할 제도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제정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교회가 만들어졌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가족 사이에 감출 허물과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혹시라도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 죄로 생긴 결과인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가정 안에 일절 있어선 안 된다. 그 일을 부모부터 솔선수범하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은 아니더라도 부모는 물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식들이 저절로 자기 부모를 영예롭게 여기게 된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구절이 신명기 6:5 '쉐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되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다.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스스로 있는 자"(추 3:14)라고 하면서 이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지는 15 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당신의 표호라고 덧붙였다. 이름은 없지만 영원히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러주길 원하는 유일한 이름이었다.

정확하게 말해 당신의 성품이자 당신의 백성을 이끄는 모습이다.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최초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바로 그 약속하신 때에 어김없이 달성하신 하나님이다. 선조들의 덕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최초 인간이 타락한 후에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언약의 은혜 아래에 함께 있다는 것이다.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성육신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히 달성했다. 바울은 아테네의 불신자들더러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아래 즉, 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했던 것이다.

두 종류의 생명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에겐 첫째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부모가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신자는 첫 네 계명이 전제 내지 근거로 삼아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다섯째 계명의 의미가 불신자들의 것과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뜻이다. 육체로 살고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살고 죽음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육신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 실존이 가능하게 한 은혜는 너무 크고 중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한 통로일 뿐이다. 또 육신의 생명은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상자에 불과하기에 부모는 포장상자를 준 것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포장상자에 불과한 육신이 전부라고 여긴다. 포장상자를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평생을 두고 돈, 권력, 명예, 지성을 최대한 추구한다. 그러나 포장상자란 원래부터 남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자신의 본질이자 전부인 자기 내면이 채워지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뤄도 자아 충족은 없고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 중에도 조금 깨인 사람들은 내면의 자아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도덕 철학 종교 등에 심취하며 정신을 수양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에 자기 존재의 기반은 물질이다. 그 정신도 실은 물질에서 출발한 것이요 물질의 작동일 뿐이므로 아무리 고상하게 가꿔도 소용이 없다. 물질인 정신이 또는 죄로 타락한 정신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뜻으로 주신 거룩한 영혼에 충족을 주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실제로도 불신자들 모두가 자아충족을 외치지만 아무도 성공하는 자는 없다. 청개구리 같은 본성이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성의를 다해 가르쳐줘도 도리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발만 한다. 너무나 어리석다 못해 불쌍하기 짝이 없다.

다시 제 누님 이야기를 하겠다. 세상에 그럴 수 없는 의인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다. 그 연세에 박물관에 자원봉사하고 계신다. 노년에 자기 몸이 건강한 것이 효도라고 했는데 반쯤은 성경적 진리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이 내 몸의 건강 즉,

육신적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내 인생은 내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 목사인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두 종류의 인간

이 다섯째 계명은 결국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나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다. 부모가 이 땅에서 인간이 영예를 돌려야 할 최고의 존재라고 믿는 자와, 부모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최대의 영예를 돌려야 하지만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부터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우선인 자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모든 이가 인정하고 또 그래서 그것은 인생의 진리다. 그럼에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충분히 다 갚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십계명을 잘 지키므로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는 불신자들이 많다. 그러나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다섯째 계명에 대해 떳떳할 수 있느냐고 대답해보라고 하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했을 때에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술술 물러간 것보다 더 빨리 모두 물러갈 것이다. 아무도 예스라고 답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간과해버리는 사항이 하나 있다. 내 부모도 실은 당신의 부모에게 똑같이 한없이 작아지는 불효자였다는 것이다. 그 위의 할아버지도 또 그 위의 할아버지도 모두 그랬다. 문제는 우리의 자식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대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무엇보다 누가 누구에게 죄책감을 가져야만 하고 또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하는가? 우리 모두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따라 그랬다면 도대체 그 양심은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가? 그 답은 오직 하나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었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탓이다. 그래서 모든 이가 천하의 불효자인 동시에 불충분한 부모인 것은 그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경륜을 인간이 스스로 파괴한 탓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영혼을 부여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데도 인간은 포장상자에 불과한 육체의 생명을 가꾸는 데만 몰두했다. 처음 타락한 이후로 그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 내면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인 영혼은 정녕 죽었다.

그러다 결국 본인의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면 누구나 인생이 참 덧없었다고 고백은 한다. 만족보다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실토한다. 이때에도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내 시신을 부모와 조상 곁에 묻어달라는 한 가지 소원 밖에 없는 사람과, 내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야 비로소 참 안식을 얻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자다. 쉽게 말해 마지막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자와 평강 가운데 아름답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신자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설교 내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비록 충분치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고 시간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최선을 다해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기억되고 싶은 이름은 단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자식을 더 이상 불효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쉼마처럼 자식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육체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임을 자기들의 삶에서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교육에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신자 부모는 불신자 부모와 달라야 한다. 포장상자만 가꾸는 일 즉, 아이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자식에게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귀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결론으로 고백한 내용의 첫 부분에서 그치게 만드는 셈이다. 포장상자를 치장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는 따지자면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최고였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고 해 아래에서 행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했지 않는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 보니 전부가 쓰레기에 불과하더라는 것이 둘째가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부터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그렇게만 하면 그만큼 자식을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끔 키우는 일도 없다. 모든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다. 신자는 그 반대여야 한다.

신자는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확보했다.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흑암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어떤 큰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최소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고 가꿔나가야 한다. 대대손손 바로 그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 그럼 부모를 자식들이 대대로 저절로 공경하게 된다. 자손들로 바로 이 다섯째 계명을 잘 지키게 만드는 일이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 만 스승은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않고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다.(고전 4:15) 세상에는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많다. 친 자식은 아니지만 입양하여서 바울처럼 사랑으로 복음으로 키우면 된다.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모든 집의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을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는 일에 자신이 맡은 일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바울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자마저 한두 명의 자식인지라 어떻게든 육적 생명 포장 상자를 치장하며 키운다면 그를 그리스도 밖으로 내모는 짓이다. 거기다 일만 스승은 있으나 복음으로 낳는 부모는 드물다고 했다. 신자 부모마저 자식을 자꾸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옳고 그른 것으로 따져 뜯어 고치려고만 한다. 그 영적 생명을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게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은 진화된 물질과 물질로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하에서 영과 영이 예수 안에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관계다. 자식의 영혼을 십자가 복음으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 불효자라고 후회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짓이다. 부모로서 육신적으로 최고로 잘 해주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자식의 영적 생명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이 이 다섯째 계명이 오늘날의 신자에게 주는 참된 의미이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살인 (출 20:13)

“살인하지 말라.”(출 20:13)

너무 가난한 영적 실체

십계명이 이스라엘 고대유물로 박물관에 가있을 것이 아니라 현대 신자들도 문자적으로 엄격히 적용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여섯 번째 계명이야말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싸움과는 거리가 멀고 학교를 오가며 동네 불량배들에게 돈 빼앗기기 일쑤였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럴만한 힘도 없다.

그러나 성경해석의 원칙에 충실하면 정반대로 우리의 너무나 가난한 영적 실체 즉, 평소에 알지 못했던 추한 살인적인 본성과 직면하게 된다. 성경해석학 전체를 강의할 시간과 여유는 없다. 지금 살펴보는 것은 구약이므로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둘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첫째 구약은 미완성의 점진적 계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는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구약만 따로 떼서 보면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해석이 될 소지가 많다. 반드시 신약성경과 비교하여 해석해야 한다.

둘째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진술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속사(救贖史)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태초에부터 마련하여서 당신의 백성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쉽게 말해 그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이다. 또 그 구원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기에 구약구절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요컨대 여섯째 계명은 윤리적 계명으로만 접근해선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살인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는지 따져야 한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십자가 구원과 연결되는 맥락은 무엇인지 찾아내어야 한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 5:21,22 에서 살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1,22)

‘옛 사람’(21 절)은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여섯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22 절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라가(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 범위를 확대했다.

미련한 놈이란?

노하는 것, 바보, 미련한 놈이 세 종류의 욕이나 저주를 열거한 것이 아니다. 먼저 세 번이나 강조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불신자는 물론 신자들도 저촉되지 않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 셈이다.

둘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평소에 그 형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그런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영어로 치면 “empty head”이다. 마침 우리말의 욕 중에 “골빈 놈”처럼 들리지만 지성이 모자란다는 뜻은 아니다. 유대인 식 사고와 어법으로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head 이므로 lifeless 생명이 없다는 뜻이 되므로 죽은 놈 내지 죽일 놈이 된다.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살 가치도 없는 놈이다. 우리말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다. 너를 낳고 너희 엄마가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한마디로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놈이라고 욕했으니 분명히 살인이다.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 모두 저 세상 즉, 골로 보낸 사람 한두 명은 갖고 있고 아마 너무나 교만했던 제가 제일 많을 것이다. 모세는 동족을 위한다는 의분에서, 다윗은 일시적 욕정 때문에 살인했다. 아브라함은 두 번, 이삭은 한 번 마누라를 팔아넘겼어도 자기 목숨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흉악한 살인자일 것이다. 최소한 그럴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렇게라도 강조해야 그나마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하는가? 최소한 분노는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가? 또 모세의 십계명을 새롭게 가르쳤으니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인가?

여기서 또 다른 성경 해석의 원칙이 하나 나온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리 없다. 동일한 한 분이므로 당연히 그 뜻도 같다. 그 뜻을 실현하거나 인간에게 계시하는 방식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도덕적 영적 수준에 맞춘 것뿐이다. 요컨대 모세의 여섯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풀어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첫째로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첫 계명이 대전제가 됨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아홉 계명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놈, 너 엄마가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등의 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현재 통치하고 있는 인생을 감히 인간인 주제에 그것도 죄인인 주제에 판단 정죄한 것으로 엄청난 죄다.

인간 최초의 범주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옛날 사람, 아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창조 직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놀랍게도 인간끼리의 최초의 범주는 살인 그것도 친형제끼리의 살인이었다.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범한 죄였지 직접 인간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또 그 후의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간 사회 범죄 1 호였다.

설마 친형제끼리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살인이 최초의 범죄였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겁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해선 안 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강요 억압 공포를 주지 않는다. 도리어 인간이 저지른 추하고 사악한 잘못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바쁘다. 또 간혹 형벌을 주어도 오직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제사의 의미와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선 익히 배워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데도 쉽게 간과해버리는 요소가 하나 있다.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된 것 단 하나 없는데도 죽였다는 것이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에 서로 다룰 일이 전무했다. 당시 사람들이 없고 외로워 틀림없이 아주 친했을 것이다. 미국 이민 오면 한국과 달리 친척 친구들이 없어서 형제들끼리 아주 친하게 지내지 않는가?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기 것은 받지 않는데 시기하여 엉뚱하게 아벨을 죽였다. 정작 잘못을 따지자면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 했어야 한다. 첫 번째 수확물로 가장 먼저 제사부터

드리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나 가르쳤어도 강조하지 않았을 수 있다. 아담과 이브로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지나쳤을 수 있고 부모는 잘 가르쳤는데 가인이 예사로 여겼을 수도 있다.

어쨌든 첫 소산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일에 동생 아벨이 교육이나 책임질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 가인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이 갖는 시기 중에 가장 세기기 강하고 치사한 것이 영적인 시기다. 교회 안의 분쟁이 세상보다 더 추해지는 탓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진짜 이유?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고 부모를 원망했는데 왜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 형은 놀기만 해서 학교 성적이 엉망이라 부모에게 야단맞았다. 반면에 동생은 부모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서 부모에게 칭찬 받았다. 성적이 나빠진 것은 형 본인의 전적인 잘못이다. 동생이 시쳇말로 형이 성적 떨어지는데 보태 준 것 하나 없다. 그런데도 칭찬 받는 동생이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 미워진다.

실제로 부모가 없을 때에 엉뚱하게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다. 부모가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동생과 잘 지내고 보호해주라고 했더니 도리어 해코지만 한다고 야단치면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냐고 부모 책임 아니냐고 덤벼든다. 가인도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즉, 왜 그를 죽였느냐고 하나님이 묻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듯이 말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에 똑같이 경험했던 일이다. 모두가 그랬다면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답도 간단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영적 계명이 무엇이었는가? 네가 나를 거역하면 정녕 죽으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정녕 죽음이 닥치는데 영적인 생명이 죽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도 그 영적 생명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가인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육신만의 생명체로 살고 있었고 그 실제적인 영적 죽음의 파괴력이 죄 중의 죄인 살인죄로 나타난 것뿐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영적 생명이 죽어있으면 얼마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지 생생히 알라는 뜻이다. 성경은 생각보다 쉽게 대할 책이 절대 아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해질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선 안 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위치와 형편에 있는지를 말해 주는 책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적 생명은 죽어 있고 나아가 살인죄를 수시로 범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다. 예수님도 죽은 자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육신과 영적으로 다 죽은 시신을 장사하라고 하셨다.

세상의 책들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성경은 전혀 다르다. 사람을 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둘 하나로만 나누는 절대 절명의 책이다. 이미 예수 믿은 신자들도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기꺼이 걸만한 성경의 진리를 파헤치고 실제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살펴본 대로 창세기 2 장의 선악과 금령과 4 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내용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무엇이 살인이며 또 영원한 죽음이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구약성경의 맨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다.

신(神)은 죽었는가?

니체라는 허무주의 철학자가 “신(神)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의 실재(實在) 자체가 죽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마저 생활하는 모습이 방자하고 교만하고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으니 신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행동하니까 역설적 표현으로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섯째 부모를 우습게 알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도 그러는 판에 여섯째 계명대로 형제와 이웃을 우습게 여기는 일쯤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 중에서 같은 종류 즉, 형제를 시기해서 그것도 영적으로 시기해서 살인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다른 동물은 간혹 번식 시기에 암컷을 차지하려고 혹은 그 지역의 주인이 차지하려고 드물게 그러는 수는 있으나 단순한 시기로 그러지 않는다.

시기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다. 정말로 사랑할 대상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최소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감정이다. 가인도 하나님으로 인해 아벨을 시기했으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그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이 가능했으나 부모가 타락할 때 사탄의 길을 따랐던 본성을 이어받아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간 것이다. 그것도 먹고 살 것이 풍부하고 여자 문제로 다룰 일이 아직 없는 유토피아 상황에서 범죄 한 것까지도 부모와 그대로다.

살인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린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뜻이 있는지 제발 알라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적 생명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결코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것만이 네가 정녕 죽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선악과 금령을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다.

예수님이 해선 안 된다는 첫 단계인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까지는 상대를 사랑하고 있거나 최소한 미련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셋째 단계인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미련하다는 것은 머리가 없다는 것인데 머리란 사실상 인간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다.

또 말로 표출되는 것은 마음이 그렇다는 것인데, 상대를 실제로 이 세상에선 없어야 할 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상대를 내 마음 속에 완전히 지운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를 철두철미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엄청난 살인이다.

가끔 이혼은 하지 않고 또 별거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자립할 때까지만 참다가 아이들이 결혼하면 각자가 갈 길로 가겠다는 부부가 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나도 상대에게 마찬가지로 그렇다.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옆에 그냥 돌이 하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다.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서 지웠다. 문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자 두 살인자가 한 집에서 동거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교회에선 아주 사이좋고 믿음 좋은 장로와 권사 부부로 행세하다 교회 문만 나서면 쌍하고 찬바람이 분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살인이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심령들이 아닌가? 그들 심령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맞는가? 아니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절대로 없지 않는가?

살인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대

모세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간략하고도 직접적이며 절대적인 명령이다. 당시는 단순히 살인이 흔했고 심지어 단순히 분노가 넘쳐서 죽이기도 했다. 예수님은 그래서 형제에게 제일 먼저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도 그렇다. 당시는 장의사가 있어서 일반인이 시체를 만질 이유는 없는데 길 가에 그만큼 시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는 인간사회의 도덕의식이 많이 성숙되었고 법치도 엄격히 적용되어 치안이 확보되어 육체적 살인은 많이 줄었다.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무서운 살인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상대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선 절대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사람이 물질에서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면 물질이 물질을 죽이는 것은 즉, 육체적 살인마저 사실상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오직 물리적 법칙이 작동되었을 뿐이다. 함유하고 있는 열량이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이기고 삼키는 작용이다. 그래서 불신 세상에선 권세와 돈이 많은 자가 갑 질하게 마련이다. 갑 질이 바로 상대의 영혼을 죽이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백성들이 또 그런 공동체에선 절대 그런 갑 질을 해선 안 된다. 시쳇말로 상대를 골로 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물질임을 증명하는 짓이다. 상대가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영혼임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도 똑 같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바로 네가 너를 골로 보내는 것인 셈이다. 자신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의 잘못을 일흔 번씩 일곱 번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백 구십 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수치다. 예수님 당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상대가 잘못된 일 하나씩 따져서 용서해선 전혀 불가능하지만 상대 그 사람 자체를 무슨 일이 있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이 힘들면 수용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사백 구십 번을 잘못했어도 그 일들은 네 마음속에 전혀 기억도 회상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육신적 생명이 전부이므로 외모로 차별한다. 신자는 하나님이 심어준 영혼을 보아야 하는데 천국에 함께 가야 할 존재다.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순전히 역설적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상대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므로 상대에게 좋은 일이 된다.

반면에 이 땅에 함께 살면서 상대를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서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면 그 상대는 평생에 마음에 너무나 심한 상처와 모멸감에 파묻혀 살게 만든다. 또 그렇게 한 상대를 향한 분노와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 실감나게 말하면 그 삶이 지옥이며 마치 지옥 불 속에 사는 것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마 5:22)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받는 제사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다. 특별히 구약은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십계명대로 살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큰소리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방자하게 교만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조차 착하게 산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이 주님은 거역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소외된 불쌍한 자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욕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라고 배척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욕을 듣는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자, 나면서 불구자 들을 하나님인 당신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삶 속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창세기 4 장의 형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제사는 내가 받지만 너희 유대인들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첫째로 사탄의 농간에 넘어간 것이다. 사악한 제사장들이 돈과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에 동조한 대중들은 은연중에 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하면서 엉뚱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예수님의 엄숙히 선포한다. 모세의 십계명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고 말이다. 이 여섯째 계명도 첫째 계명에 비추어 잘 따져보라고 한다. 그럼 과연 너희가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이 특별히 긍휼이 없이는 한 시라도 살 수 있는지를 말이다. 바로 이것이 여섯째 계명의 참 뜻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2:1-4 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다. 상대에게 분노하지 말고 더더욱 무시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상대를 나보다 위에 모시고 섬겨야 한다. 그럼 내 기쁨이 오히려 충만케 된다고 했다. 꼭 이웃이 아니라도 된다. 이웃부터 그렇게 하긴 힘들다. 바로 내 남편, 아내, 성도들 심지어 자녀들부터 그래야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한 권면인지 모른다.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뜻을 잘 살피면, 제대로 안다면,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결코 상대를 내 밑에 깔아뭉개지 못한다. 직접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가인의 경우처럼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오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채워야 한다. 타락했을 당시에 육신적으로도 바로 죽었어야 할 아담과 이브를 살려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후손을 번창 하게 한 후에 즉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그분이 만드신 너무나 고귀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영적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이 여섯째 계명의 뜻이다.

Me too 운동의 영적 실상 (출 20:14, 마 5:27-32)

“간음하지 말라.”(출 20:14)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27-32)

Me Too 운동이 활발해도

최근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Me Too 운동이 한국에도 상륙하여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성폭행 혹은 추행을 한 가해자는 주로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이라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자이다. 평소의 언행도 아주 의로워서 존경까지 받는 자들이라 충격이 크다.

피해 여성은 같은 분야에 갓 입문한 초년병이 대부분이다. 성폭행을 거부하자니 그 업계에서 출세는커녕 아예 발도 못 디딜 판이라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억울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치사하고 야비한 갑 질 중의 갑 질이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갑자기 사악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에 여성의 사회활동이 급격히 증가했기에 어쨌든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지속적으로 있어온 범죄다.

지금까지는 성적 순결이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으로 강요되어오다 이젠 남녀평등이 확보되었다. 또 소셜 미디어가 발달함으로 해서 그 동안 쉬쉬 해오던 것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뿐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소득수준이 높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일부 국가에만 있는 현상이다. 여전히 여성이 억압당하고 있고 발설했다간 오히려 손해가 더 크고 자칫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

말하자면 Me Too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인간사회가 훨씬 더 깨끗해지리라 바라는 것은 선부른 기대이자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교묘하고 음흉한 성적인 갑 질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인간 사회 최초의 범죄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살인 그것도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는 친동생을 형이 엉뚱한 화풀이로 죽인 것이었다. 두 번째로 일어난 범죄는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이 성적인 갑 질이었다.

창세기 4:19-24 에서 라멕은 살인은 당연히 밥 먹듯이 범하고 있었고 그 위에 힘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는 유부녀라도 빼앗았다. 그러면서도 가인이 받은 벌의 열 배를 받더라도 전혀 상관없다고 하나님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큰소리쳤다.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쾌락과 사치만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었다.

간음이 성적인 갑 질(?)

간음은 다 큰 어른 두 사람이 자의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행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자 자유에 속하므로 범죄를 구성할 요소는 전무하다고 여긴다. Me Too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서구사회에서 간음을 정죄하면 앞뒤가 짝 막힌 광신자 취급을 당한다. 한국도 개인의 사생활에 정부 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Me Too 운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강제성의 개입여부다. 나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억지로 당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운동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배후에 있는 더 근본적인 생각을 역설적으로 따지면 성(性)적 문제는 개인의 전적인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의 여섯 인간관계에 대한 규정 중에 불신 세상도 다른 것들은 아직은 다 죄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의 일곱 번째 계명만은 사정이 다르다. 십계명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 불리며 기독교가 대세인 이곳 미국 동남부 주에서도 십계명 기념물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또 일부 크리스천들마저 심정적으로 그 조치에 동의하고 있다. 왜인지 아는가? 교회 안에서도 간음이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어서 간음은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거나 최소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간음은 실은 성적 갑 질 중의 갑 질이다. 앞으로 Me Too 운동으로 폭력에 인한 갑 질은 많이 줄고 분명히 깨끗해질 것이다. 서두에서 성적 갑 질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말씀 드린 것은 바로 간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뜻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십계명에선 여섯째로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고만 언급하나 실은 모든 성적 범죄를 대표한 것이자 사실상 가장 악질적인 성적 범죄다. 레위기 20 장과 신명기 22 장에 온갖 추악한 성적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거의 모두 사형으로 엄격하게 다르시라고 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인 이상으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다.

언뜻 성인 남녀가 자발적으로 결정했고 현실적으로는 두 사람만 비밀을 유지하면 제 삼자에게 아무 피해도 없다. 그런데 왜 성적 갑 질 중의 갑 질이라고 말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제가 임의로 해석한 제 의견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용한 것뿐이다.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意)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했는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다. 죄송하지만 19 금 표현으로 예쁜 여자를 보고 수컷으로써 잠시 스쳐지나가는 호기심 내지 욕정을 타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대에 대해 뭔가 잘해보려고 궁리하며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영적 생명체를 자기 마음속에 완전히 지웠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를 자기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고 있다면 아내를 마음속에서 지운 것이다. 아니라면 라멕처럼 일부다처제에 욕심이 있는 셈이다. 이는 간음 위에 살인까지 한 셈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상대의 잘못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욕감은 무섭다.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랑 호스티스 있는 술집에 가서 밤새 놀다 오면 금방 알아챈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발각된다. 그것도 눈치 채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여성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흔히 아내들이 남편이 하룻밤 외도하는 것은 어쨌든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여인과 아무 육체관계 없이도 계속 만나 식사만 해도 난리가 난다. 정신적 간음이 훨씬 더 중한 잘못이라고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간음은 간음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진짜로 살인이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없애는 것이지만 일곱 번째 간음은 영혼의 살인이다. 현실적 피해가 없어도 또 처음에는 그럴 의도도 없지만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핑계는 간음에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는 너무나 치사하고 야비한 갑질이다.

모세의 이혼증서

예수님은 이어서 모세의 이혼증서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했다. 율법에 따르면 아내를 취한 후에 수치를 발견하면 증서를 적어주고 내보내도 된다고 허용했다.(신 24:1)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규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요리를 못하거나 시기를 하는 것 등등, 아무 하자나 꼬투리 잡아서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렸다.

심지어 증서를 써주지 않고 내쫓았다. 당시는 여성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기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제멋대로 여자에게 성적인 갑질을 하기는 라멕과 하나 다를 바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단순히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이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혼증서를 써주면 내보내도 된다는 것은 여성의 재혼과 생계는 물론 최소한 그 인권을 보장해주라는 뜻이었다.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없었다.

문제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다. 음행을 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다. 다른 것으로 핑계 대면 설령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그 아내와 재혼한 남성이나 그 여자가 둘 다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혼증서는 지금으로 치면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셈으로 재혼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면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법에선 여전히 원래의 부부관계는 지속되고 있고 재혼하면 그 아내나 그녀에게 재혼한 남자도 당연히 간음 죄를 범한 것이다.

실제로 신명기 24:1 에서 말하는 여자의 수치에 대해 “데려온 후에” 발견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살아본 후에”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혼증서를 주기에 합당한 수치는 결혼

전에 실수로 순결을 잃은 것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누가 봐도 타당한 결정적 사유여야 한다. 쉽게 말해 도박 같은 치명적 결점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 꼬투리나 잡아서 증서를 써준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 적용했지만 따지고 보면 문자적으로도 엉터리로 해석한 셈이다. 유대인들은 세속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마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제멋대로 왜곡 적용했다.

바꿔 말해 하나님 그분을 마음대로 갖고 논 것이다. 라멕은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벌을 열 배로 주더라도 받겠다고 하면서 거역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말로는 믿고 따르다면서도 비겁하게 삶에선 그분을 조종 농간했다.

타락 전으로 돌아가라.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간음 외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의 뜻이다.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간단하고도 절대적인 명령 형태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면 이혼증서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문제를 두고 다시 논쟁할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먼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를 각기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창세기 2:24 을 인용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창설한 목적과 뜻 하나로만 판단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식 주례 때에 목사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결혼 당시에 어느 누구도 헤어질 생각을 않는다. 불신자들도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 죽고 못 살아서 콩깍지가 씌웠든 어쨌든 평생을 함께 하려고 결혼한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금방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에 모세의 이혼증서를 그런데 절대 써먹지 말라고 예수님이 썰기를 박은 것이다. 예수님은 참 절묘하다. 신자들마저 때로 후회가 든다. 죄송하지만 목사와 장로들 중에도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증서법이 그리운 사람들도 꽤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십계명은 누차 강조하지만 신자가 대상이다. 신자가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분과 위치에 있는 자라는 뜻이다. 구원을 받은 것은 죄, 특별히 아담이 타락한 그 원죄에 빠져 구원 받은 것이다. 구원이란 그래서 타락 전의 상태로 되돌려진 것이다.

실제적인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탐욕 교만 악함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자의 첫째가는 인생 목표로 바뀌었다는 것인 전제가 되었다. 신자의 현실 삶이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극히 일부라도 그쪽으로 나아진 모습이 전혀 없다면 신자가 아니며 구원 밖에 있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숨길만한 죄나 허물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부부끼리는 이메일, 카톡, 지갑 등을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컴퓨터 외장 하드드라이브도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간음은 부부 사이에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허물이지 않는가? 첩부터 끝까지 모두를 감춰야 하니까 정말 죄 중의 죄다. 세상 사람은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며 성적인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기독교가 간음을 죄라고 즉, 라멕처럼 왜 하나님이 막느냐고 큰소리친다.

그런데 신자가 간음을 하면 바로 라멕의 죄를 짓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수십 배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사랑의 배신

간음의 피해를 입은 배우자 쪽에선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것이다. 삼류 유행가 가사를 읊조리려는 뜻은 추호도 없다. 사랑이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이다. 단순히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결혼도 에로스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영국 속담에 결혼이란 사흘 간 신혼여행 기간 동안만 사랑하고, 석 달 간은 상대의 하자나 속은 것 없나 탐색하고, 삼 년 간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삼십 년은 포기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다.

결혼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다. 세상 사람은 에로스적인 사랑만으로 결합 유지하려니 이혼은 물론 간음을 밥 먹듯이 한다. 신자는 아가페 사랑으로 결합되었기에 서로 별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그 전에 간음 같은 부끄러운 일을 아예 하지 않게 된다.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 그분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아담과 이브의 결혼은 타락 전에 이뤄졌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러다 죄로 타락한 후에는 사랑의 본성도 함께 타락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에로스 사랑만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사랑은 어떤 흉악한 죄인도 어떤 큰 절망에 빠져 있어도 사망 직전에도 살려낼 수 있다. 사랑으로 용서 못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나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사랑만큼 더 강한 파워는 세상에 없다. 그 힘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하게 바꿀 수 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죄악도 나아가

이기심 감정 욕심 특별히 자존심을 절대 개입시켜선 안 된다. 개입되는 순간 부끄럼이 생기고 절대로 서로를 100% 온전히 오픈할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인간의 원죄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당신께서 인간과 우주 전체를 맛바꿀만한 사랑을 베푸시려는 것이었다. 창조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이뤄졌다. 잠깐 상상을 해보라. 지금도 인간이 없는 이 땅은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진화와 창조 중에 어느 것을 믿느냐가 단순히 인간의 기원을 다루는 과학적 이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주 전체를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는가?

피조물 그 중에서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사랑이 없이는 영혼에 생기와 활력이 절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기도 찬양 뜨겁게 하는 종교적 열정은 잠시 뿐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실제 체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한다.

불신자의 인생이 왜 고달픈지 아는가? 그들의 욕심이나 죄의 본성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다. 그들 중에 우리보다 더 검소하고 의로운 자들 많다. 끝까지 인간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첫째 아니 유일한 요소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라고 선언했다.(요일 4:8-11)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는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하나 감출 것 없이 문자 그대로 벌거벗고 달리셨다. 이난의 죄악, 특별히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그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안고 가셨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자는 모든 인간관계를 부부사이를 포함하여 이런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눠야 한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

에로스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그것도 성적 욕망으로만 정의하는데 잘못이다.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기인하여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랑이 에로스다. 하나님 쪽에 기원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반대급부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대신에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다.

간음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선 유행가 가사처럼 인간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다. 반면에 신자에게 이 일곱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간음에 대해서 신자들마저 예사로 여기고 간음이 만연해져 가는 세태에 무감각해진 이유가 하나 있긴 하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바로 용서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놓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다. 그 여인이 용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다는 점이다. 주님은 그 불쌍한 여인 그 사람을 용서해준 것이지 그 죄까지 용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엄격히 선언했다. 간음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면 쉽게 말해 여자들을 내 멋대로 차지한 라멕의 갑 질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신앙 윤리 즉, 신자니까 더욱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차원으로만 접근해선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존재 전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주제는 제가 계속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가르칠 내용이 많다. 이 일곱째계명과 연결해선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신자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오직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못했는지 여부여야 한다. 불신자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럼 신자의 성공은 정반대로 그분의 사랑이 내 삶 전체에 실현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상대를 내보다 낮게 여기면 오히려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다. 우리 모두 그런대로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이웃에게 순수하고 진실 된 사랑은 분명히 하고 있다. 부족한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다. 모든 인간관계에 부부 간에는 더더욱 이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면 진정으로 성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계명의 뜻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뜻은? (출 20:15, 신 24:6)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 “사람이 멧돌이나 그 위 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신 24:6)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에 대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알아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는 언약을 맺었다.(출 19:1-6) 그 후에 율법을 주셨기에 율법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첫째 율법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대상이고 또 출애굽 구원 후에 주셨다. 그것을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율법에 전혀 없다. 둘째 이스라엘이 대상이므로 율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의 통치 운영체계이다. 셋째로 십계명은 그 법체계의 가장 기본으로 현대 국가로 치면 헌법에 해당된다. 또 그래서 출애굽기 20 장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민법 상법 형법 같은 하위의 법들이 추가 보충되었다.

지금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참 싱겁고 이것 모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여기면 율법의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된다. 한국에서 헌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는가?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먼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이를 거역하면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반역죄다. 또 국민의 사대 의무인 교육, 납세, 국방, 참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거부하면 한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대신에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탈세를 하면 하위의 세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

믿는 자들의 영적 헌법인 십계명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에서 넷째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한 것이다. 다섯째에서 열째까지 계명은 그 나라 국민의 6 대 의무를 말한다. 십계명을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과 인식이 전혀 없다. 그 용어조차도 모른다. 대신에 이 땅에서의 자신의 안락과 형통만 추구하는 그들은 십계명의 시시비비를 논한 자격이 없다. 마치 이슬람 국가 국민이 한국의 헌법에 대해 감 놓으라, 사과 놓으라, 참견하는 꼴이다.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접근하라.

반면에 신자들은 초등학교 학생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덟 째 계명을 첫째로 반드시 제사장 나라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경제 윤리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속원들로 신자를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거나 최소한 영적인 찢림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또 그러기 위해서 도적질에 대한 율법의 구체적 규정, 헌법을 보완 설명하는 하위의 법들은 물론 신약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율법에서 도둑질은 출 21:33 부터 언급하기 시작한다. 당시 가장 귀한 재산인 소 도적질을 다룬다. 소를 훔치면 무려 다섯 마리를 변상해야 하고 양은 그보다 덜 중요해도 네 마리를 갚아야 했다.(출 22:1) 당시는 어마어마한 재산이므로 아예 훔칠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었다.

심지어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었다. 당시의 가옥 구조는 흙벽돌로 짓거나 짚에다 흙을 엉기성기 얹혀서 만들었다. 중풍 병자를 친구 네 명이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방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내려 치유 받은 사건에서 보듯이 누구나 쉽게 손으로라도 뚫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발달이 안 되어있어서 실제로 보물을 상자에 넣어서 밭에 묻었다. 주인이 미처 그 돈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땅을 산 다음 주인이 밭을 갈다가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났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의 6 대 의무 중에 넷째를 차지한 것은 당시의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치면서 유일하게 현세의 것을 구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지 않는가? 하루하루 한 끼를 연명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과제였다.

실제로 신명기 6:4 에서 돈을 빌려 줄 때에 맷돌과 위짚은, 위짚만 없어도 맷돌을 쓸 수 없으므로, 절대로 저당잡지 말라고 명했다. 밀가루를 빵아 매일 떡을 해먹어야 하는데 맷돌이 없으면 끼니를 굶게 된다. 그래서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생명을 전당잡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의 도적질은 일용할 생계를 위협하니깐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율법은 도둑질을 살인과 같은 범주로 취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일 센트도 깨끗하게 갚으라.

물론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 사는 우리로선 기본적인 생계는 걱정하지 않는다.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면 정부가 구호 단체에서 돌봐준다. 불신자들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경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많다. 예수 믿은 신자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그래서 이 여덟째 계명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이해 적용해야 한다.

너무 거창하게 여길 것 없다. 투명 공정하게 하되 아예 도적질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형제간에 송사가 생기면 한 고드란트까지도 갚으라고 했다.(마 5:25,26) 고드란트는 로마 시대의 가장 적은 화폐 단위 동전을 말한다. 지금으로 치면 일 센트다. 마지막 1 센트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선 일 센트도 밀리언의 도적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바늘 도둑과 소 도둑을 차별하여 벌을 주고 구약 성경도 소와 양의 도적질을 구별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선 바늘 도둑과 소 도둑의 구별은 없고 다 같이 도둑일 뿐이다.

이 계명에서 도적질이란 경제 범죄를 총칭한다. 경제적 용어로 정의하자면 어떤 형태의 재화(財貨, Goods)든 그 소유권은 물론 운영권을 불법 내지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저울을 속이는 것 같은 도적질도 많이 늘어났다. 이중계약을 작성하는 것, 분식회계를 하여 적자인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해서 주주를 속이는 것,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권력자 위치에서 도시계획 정보대로 미리 투기하는 것, 등등이 다 도적질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처럼 그 종류와 수법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신자는 단 하나의 원칙만 실현하면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단 일 센트라도 깨끗한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회사에선 부서별로 회사 돈으로 회식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부원끼리 나눠가지는 일이 있다. 그 때에 나는 크리스천으로써 참여 못한다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 중에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도 저와 심각히 상담중인 분이 있다. 그것도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 선생님이다.

혹시라도 마누라 몰래 비상금 구좌를 갖고 있는가? 그것도 도적질이다. 지난주에 부부는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더 나아가 인터넷 बैं킹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공유하지 않으면 도적질이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일 센트도 깨끗하라고 했고 창세기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시간을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대상으로 경제적 용어로 재화라고 말씀드렸다. 제품만 뜻하는 재물이 아니다. 용역(service)처럼 눈에 안 보이는 가치와 의미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주다. 대표적인 예로 약속 시간에 늦으면 상대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 시간에 상대는 돈을 벌 수 있고 여러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다.

제가 다녔던 미국 신학교 교수 한 분은 Term Paper 제출 마감 시간을 일초라도 어기면 무조건 한 Grrade 낮게 점수를 매겼다.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아무래도 더 내용이 좋아지고 인용도 더 많이 하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둘째로 실은 더 중요한 이유로 예배 시간에 성도는 늦게 참석할 수 있어도 목사는 일초도 지각해선 안 되니 미리 연습 훈련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 남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남을 기다려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껏 철저히 지켰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그렇게 되길 소원한다.

목사가 된 후에는 이 원칙이 더 발전되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긍휼이 한 시라도 필요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저부터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라도 특별히 성도는 결코 현재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대신에 과거에 어떤 상처와 시련과 아픔이 있었는지 읽어내려 애를 쓴다. 또 현재도 그 사람만의 특유한 사정과 입장이 있다고 보고 매사를 판단하려 한다.

나아가 앞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한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것인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최소한 힘을 얻게 하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쓰임 받거나 그런 통로라도 되는 일에 매진한다. 어떤 이들은 목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명하고 앞장서서 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누구라도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지금껏 목회 원칙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

도적질을 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타인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탈취하는 것이 도적질이므로 내 것과 남의 것을 정확히 구분하면 된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즐겁게 교제하거나 큰 거래가 성사됨으로 시간에 여유를 가지면 좋긴 하다. 그러나 어떤 이 빌게이츠 같은 이에겐 일 분이 엄청난 돈이 된다. 다른 이들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의미로는 불신자들이 잘 알고 실천도 잘 한다. 센트는 물론 시간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도 도적질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면 윤리적 계명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최고급 수준을 실행한 것뿐이다. 신자는 하나님 뜻 안에서 도적질의 정의를 재정립해야만 한다.

문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일단 자기 생각에 도덕적으로 가장 선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쪽으로만 헤아리려 든다. 잘 들으셔야 한다. 자기 생각에 최고를 꼽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죄에 찌들고 불완전하며 오류 투성이인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함부로 판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계시인 성경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 나라, 신정 국가의 국민으로써 가장 먼저 알아야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를 속이지 말라.

제사장 나라 시민의 경제윤리인 여덟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그분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껏 주로 십일조나 작정헌금을 속이지 말라는 뜻으로만 가르쳐져 왔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로 사도행전 5 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들었다.

그 부부는 땅을 판 돈을 얼마 감추고 일부만 헌금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물론 하나님을 속였으니 너무나 큰 죄이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작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다.

베드로가 이 돈이 전부냐고 질문했을 때에 순순히 잘못을 고백 회개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만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제사장 나라를 기만하고 우습게 안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제사장 나라 시민이 되려는 헌신은 물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 대신에 오직 자기 이름만 높이려 들었기에 벌을 받은 것이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이지 않는가? 또 여전히 그 상태에 있으니까 구원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고 두려워서라도 감히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솔직히 각자 헌금하는 원칙을 낮게 측정해 놓는 것이 문제이긴 해도 말이다. 교회 즉 제사장 나라를 섬기라고 해서 재산 팔아 교회에 바치고 또 목사를 최대한 섬기라는 의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는 전혀 없다.

열방 중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재물관을 갖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중에 단 일 센트라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말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 나의 삶,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입술로는 다들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한다. 흔히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주시면 감사 헌금 얼마 하겠다고 작정한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 의도는 순진하고 착하고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 받아 얻는 유익이 자칫 내가 교회에서 헌금과 봉사와 기도를 많이 했고 심지어 선행을 많이 한 것에 조금이라도 기인한다고 여기면 그것은 내 공로가 된다. 그 일도 내 것이다. 그럼 마치 하나님이 해결사로 수고했으니 수고비조로 드린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한 후에 즉 수고비로 감사 헌금 한 후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는 절대로 없다.

인생은 버리는 싸움

인생은 결국은 버리고 비우는 싸움이다. 이는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불신자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됨을 잘 안다. 그래서 버킷 리스트도 실천하고 요로 인생도 살아보지만 자아 충족이 절대 안 된다. 한 걸 같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엔딩 자막을 찍는다.

신자에게도 온갖 고난이 닥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생이 단순히 헛되고 헛되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비우고 버리는 것이다. 신자의 인생은 바로 그런 훈련의 과정이고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대신 채워주신다. 그런 참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치는 체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다.

요한계시록 4:10 절에는 천국의 24 장로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던지며 돌려드린다고 했다. 흔히 천국에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살라고 가르친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영적 진리다.

그러나 막상 천국에선 이미 그 상급마저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끝이다. 신자에겐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분이 상급이자 그 전부다.

상급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식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지향하여 내 것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 것이다..

이런 원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6:19-24 에서 아주 간단하고도 쉽게 설명하셨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무엇이 너의 주인인지 분명히 하라고 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다. 또 조금 깨인 불신자는 재물 대신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진리를 모른다. 죄로 타락한 자기 의로 의미를 추구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예수님은 신자는 보물을 천국에 쌓아야 한다고 했다. 천국 상급을 구하라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바로 면류관마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진짜 보물이다.

불신자는 세상에 재물을 가능한 많이 쌓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여긴다. 신자는 하늘에 더 많이 쌓아야 즉,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드리는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또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싸움이 그 인생의 결말이지만 신자는 기꺼이 감사하며 비워나가는 과정이 그 인생이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는 뜻은?

예수님 가르침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포인트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데에 모인다. 그럼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셈이다. 교회에 모여 출세 형통만을 목적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여 얻으려 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그 기도로 더 많이 받아내고 그러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신자는 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일도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자다. 그분만이 그 소유권을 지닌다.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이 그분에 의해 계획 통치 결말지어짐도 인정한다. 그 운영권도 그분이 가졌다.

그런데 재물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하고 재물이 내 인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운영권을 재물에게 내어준 것이다. 내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전부나 일부를 재물이 소유권 내지 운영권을 차지했다. 내 인생의 운영권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도 그분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목사가 이런 예까지 들어야 하니 참으로 죄송하고 불행하다. 한국 서울의 가장 큰 교회는 지하철도를 편법으로 그 운영권을 차지했다고 말썽이 났다. 그 운영권은 서울시 즉 서울시민의 몫이다. 물론 그 사용료는 내겠지만 실제로 운영권을 얻는데 불법이나 편법이 동원되었다면 분명히 도적질 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셨다. 아버지가 일하니 당신도 일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당신의 마음을 오직 하늘에만 두었다. 신자도 예수님이 주관해야 할 인생을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만 운영하면 주님의 운영권을 그 교회처럼 도적질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이 여덟째 계명은 신자에게 정말로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건과 주변에 맺어준 모든 사람과 발생하는 사건과 심지어 시간처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지 묻고 있다. 또 그 운영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즉,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지 아니 그분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묻고 있다.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말이다.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고 있다면?

정말로 그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신자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 자가 신자다. 물론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고 본성에 아직 죄로 타락한 흔적이 남아 있기에 참으로 초라하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즉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은 물론 운영권마저 넘겨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 기분, 생각, 믿음, 소망마저도 죄로 타락한 나의 본성에 내어주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를 삼키려 눈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탄에게 빼앗기게 할 수 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빛 가운데 있는 것을 흑암에 다시 밀어 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최소한 도적질을 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꼴이다. 구약 율법조차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신자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맛바꾼 것이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 그분의 소유이자 그분의 운영에 맡겨져 있음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다.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실감하고 내어드리는가? 내어드릴수록 그분이 채워주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전부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집, 자동차, 은행통장 등등을 말이다. 내 것은 그분께 드려야 하지만 남의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남들과 그들의 소유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그분께 돌려줄 수는 없다. 대신에 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주신 젊은 부부에게 모두 큰 도전을 받았지 않는가? 겨우 열 명 남짓한 교인들을 섬기며 강원도 시골에서 삼십년 가량을 한 곳에서 성실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다. 그 아버님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것처럼 가난한 목사님이라 미국 유학을 경비를 도무지 댈 수 없다. 그럼에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Post-Doc. 과정까지 마쳤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직장이나 거처나 가진 소유가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시골로 들어가 두 아들을 집에서 정규학교과정을 가르치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도 아니고 완전히 놀리면서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도록 하는 노스쿨링(No Schooling)으로 양육하려고 결단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같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다 마련해주려 할 텐데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이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들들의 장래마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렸다. 지금껏 그들의 삶에서 그분의 완전하시고 미리 예비해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체험했던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온전한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 목사인 저도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할 것을 꿈도 꾸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고 오묘하고 완벽하시다. 그분의 그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제한해선 안 된다. 믿음이란 그 광대함 안에 자기를 얼마나 많이 내어맡기느냐의 싸움이다. 너무 거창하게 따질 것 없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이 한 시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분에게 전부를 내어드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 인생의 소유권 운영권을 내어주게 됨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덟 번째 계명의 온전한 뜻이다.

목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출 20:16) (신 13:6-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꺾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신 13:6-9)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라.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미국의 재판이나 의회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설 때는 반드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시킨다.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였기에 오늘의 아홉 번째 계명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모세 당시로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려면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은 증인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보완하고 있다. 먼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증거로 효력이 없게 했다.(신 19:5) 혼자선 거짓을 조작하여 모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악인과 연합해 증거하지 말라고 했다.(출 23:1) 악인과 같은 패거리면 당연히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제 삼의 증인이 악인의 협박이나 위세에 눌려서 타협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다수에 따라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출 23:2)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다수라고 다 정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로 자세히 조사해서 거짓 증언으로 판명나면 그 무고하게 모함당한 자가 받을 벌과 같은 벌을 위증한 자에게 내리라고 했다.(출 19:18) 지난주에 배운 대로 소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거 하면 다섯 마리로 갚아야 한다.

다섯째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즉,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자고 권하는 자는 가족 심지어 아내라도 가차 없이 죽이라고 명했다.(신 13:9) 단 첫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고 그 후에 백성들이 따라하도록 했다.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부담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후에 바울로 개칭)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행 7:58) 또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행 8:1) 나아가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곁에 서서 찬성했다고 재판 중에 자기 입으로 실토했다. 바울은 스데반이 조상들이 믿던 여호와

외의 다른 신인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찬성했다는 것은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으로서 이 규정을 풀어서 설명해준 것으로 최소한 그 처형을 그가 주도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율법이 증인과 증언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 규정들을 둔 것은 거짓 증거를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Me Too 운동으로 한 유명한 배우가 처음에는 모암이라고 버티다가 진실로 밝혀졌다. 그러자 너무나 창피해서 딸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다. 본인으로선 안타까운 불행이나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 갈 길을 갔다고 즉, 바울이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땅하다고 여긴다.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순전한 가정으로 만약에 거짓 증거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죄한 의인을 자살할 만큼 부끄러운 즉,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만드는 짓이다. 평생에 이마에 Me Too 라는 지워지지 않는 분홍 글씨로 각인하는 것이다.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나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착하다는 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악인으로 만드는 험담을 즐길 뿐이다. 처음에 누명 쓴 그것만 기억한다.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명할 수도 없다.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던지 시골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

대중의 기억에 그 사람은 완전히 잊힌다. 타인의 존재를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씀드렸다. 오늘 아침에 미국초등학교 학생이 왕따를 당했다고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다. 아무 잘못된 것 없는데도 어린이가 자살하는데 다 큰 어른이 자살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거짓 증거는 인격적 살인일 뿐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도 살인이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

아홉 번째 계명인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재판에 적용된다. 인간사회가 단순하고 규모가 작을 때는 재판만 공정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되었다. 지금은 사회가 매우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졌다. 거짓 증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주 많아졌다. 또 십계명은 헌법처럼 원론적인 계명이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진실 되게 살라는 것으로 이해 적용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하루에 열 번 이상 알게 모르게 거짓말 한다고 한다. 집집마다 전화가 있을 때에 광고 선전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 저를 찾으시면 제 입으로 없다고 말하고 바로 끊었다. 옆에서 아내가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꾸중도 자주 했다. 다행히 연방정부도 소비자들의 그런 고충을 덜어주려고 “Don’t call regist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광고전화가 차단되었다. 저도 제 이름을 등록함으로써 목사로서 양심을 지킬 수 있었다.

인생을 살다보면 백색의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너 살 짜이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는 없다고 진실을 말하면 천하의 죄인이 된다. 솔직히 100% 진실 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의 입부터 막는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율법으로는 죄의 깨달음만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롬 3:19,20)

이어지는 21, 22 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십계명 중에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계명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하루 열 번 씩 거짓말한다고 해서 계속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성경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롬 6:1) 법정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진실만 말할 것이라 선서하는 사람 중에는 불신자도 분명히 있다. 그럼 기독교 교리에 순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책이 상징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늘은 절대 속이지 못하니까 오직 진실만 말하라는 뜻이다.

신자는 더더욱 법정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에서 진실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혼자만 있을 때에 남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모를 것 같은 그 때에도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면전(面前)에서 행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신자는 제사장 나라 시민의 소명을 실현해야 한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하기에 신자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절대로 거짓 증거 해선 안 된다. 혼자 있을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 없도록, 최소한 그분께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크게 네 가지만 살펴보자.

죄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자백하라.

첫째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백해야 한다. 요한 사도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했으니 하나님께 거짓 증거한 것이다. 그런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했다. 대신에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케 해주신다.(요일 1:8,9)

세상 사람은 삼 세 번은 용서해도 그 이상은 무리다. 우리가 짓는 죄가 세 종류 뿐도 아니요, 같은 죄를 딱 세 번만 짓고 다시는 짓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외에 용서를 받을 방안은 절대로 없다.

심지어 다윗처럼 다른 이에게 당한 억울한 일은 물론 다른 이에게 대한 미운 감정 분노 저주마저 하나님 앞에서만은 토설해야 한다. 상대에게 그럴 수는 없다. 설령 내 잘못과 허물이라도 해도 내가 미처 모르기에 주님 앞에 다 털어 놓아야 한다. 그럼 주님이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내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고칠지 깨닫도록 해서 내 속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억울하게 당한 일까지 주님이 대신 바로 잡아 주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온전히 자백하지 못하면 아직 예수 십자가의 진리 됨과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이다. 불완전하고 죄에 찌든 인간끼리는 순전한 용서는 절대 불가능하며 당연히 그 죄들을 깨끗하게도 못한다.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감히 못한다. 문제는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여기곤 어물쩍 넘어가버린다. 그럼 고난, 문제, 소원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왜 기도할 때는 구구절절 자세히 아뢰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가? 기도도 아무 말하지 않든가 아니면 죄를 자백할 때에도 기도처럼 아주 자세히 구구절절 자백하고 또 자백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신자가 기도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정을 몰랐다가 신자의 자백을 듣고서야 판단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신자의 마음이 낮아지길 원하신다.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것이다. 주님의 팔복 강화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지 않는가?

신자도 본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 자기 영혼의 추함과 초라함의 실상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 또 그래야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신자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실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의 실상을 모른다. 어쩌면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그 죄가 익숙하고 좋아서 빠져나오기 싫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지 모른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나 책임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미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최선의 길이다. 요한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구원이다. 예수님도 당신이 길이요 진리라고 선언했다.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구원 밖에 있다는 뜻이 된다. 물론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 그러나 신자의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선하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이치이지 않는가?

믿음과 삶이 일치해라.

첫째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치기로 다짐했다면 신자의 둘째 거짓 증거는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셈이다. 신자의 삶이 자기가 말한 것과 믿는 것과 달라선 안 된다.

가장 감동적인 설교는 설교한 그대로 살아가는 목사의 삶이라고 한다. 또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셋 있는데, 여자 돈 말에서만 깨끗하면 그 목회는 이미 50% 이상 성공한 것이라고들 한다. 여자 조심은 발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째 계명이고, 돈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계명, 말을 조심하는 것은 바로 오늘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아홉째 계명에 해당된다. 십계명을 풀어서 가르치고 실천의 본을 보일 목사들도 이 셋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다고 했는데 저 같은 목사들 입부터 막는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더러 자기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실제로 그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권했으니 여자 문제에 깨끗했다. 또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으니 돈에도 깨끗했다. 셋째로 고린도 교회의 그의 반대파들이 바울은 말에는 좋아하고, 말숨씨가 없다고 비방했다. 다른 이를 속이거나 험담을 하려면 말숨씨가 좋아야 하는데 바울은 아예 그럴만한 수준이 안 되었다.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율법을 믿는바 그대로 행했기에 스데반의 사형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행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더욱 모든 일에서 거룩해졌고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에 굴복도 두려워도 하지 않으며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아니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제사라고 선언했다.(롬 12:1) 산제사를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구약의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했다.(삼상 15:22) 교회안에서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회 밖 실제 삶에서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의 위기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전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독교만큼 전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도 없다. 신자들이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다. 그 아는 진리대로 살지 않고 뒤로 호박씩 까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엄밀히 말해 외부의 그런 비방은 문제될 것 없다. 신자의 인생이 종교적 허물과 치장만으로 절대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신자가 말이 행동과 다르면 삶이 믿음과 등지면 반드시 고달프고 괴로워질 뿐이다. 제대로 믿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말까이다. 오직 그분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당신의 은혜를 나눠줄 뿐이다. 그런데도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고도 그분의 사랑과 권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 아닌가?

침묵의 죄를 범하지 말라.

서두에서 율법의 증인과 증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살펴볼 때에 일부러 하나 누락시킨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의 것이다. 본 일과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으면 그 허물을 그에게 돌린다고 경고했다.(레 5:1) 하나님은 침묵을 위증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신다.

우리 생각에는 침묵하는 것이 거짓을 한 것도 모함한 것도 아니며 죄인을 감싸주는 측면이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를 세움에 침묵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숨겨주는 차원과 다르다.

예수님도 포도원을 흔드는 여우같이 교회 안에서 분명한 잘못을 한 자에 대한 치리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처음에는 두세 증인 찾아가 권면하고, 다음에는 장로들이 가서 충고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권해도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키라고 명했다. 포도원 자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라는 뜻이다. 또 그래야만 그나마 그가 회개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침묵의 죄는 특별히 목사들에게 해당이 된다. 사악한 영적 흐름을 분별해서 경고하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 마침 이번 주에 한국의 동성애 전력이 있는 청년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다. 어렸을 때에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말 못할 학대를 받아 큰 상처가 있었다. 삶에서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겹쳤는데 너무 비참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고는 옛 습성을 딱 끊었다고 했다.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침묵의 죄 즉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기서 그쳐선 안 되고 하나 더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도 치료의 광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청년처럼 동성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동성애 배척 반대 운동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수용하여 복음으로 치유 회복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반쪽의 침묵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경의 계시에 대해 가르치고

실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보고 동성애자에게 또 다른 성적 갑질을 하며 차별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자기들도 성적 범죄를 저지르면 유독 동성애자에게만 그러는 위선자라고 싫어한다.

에스더에게 민족의 위기에 대해 침묵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에스더 너와 너의 아비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모르드개가 경고했다.(에 4:14) 하나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파수꾼이 대적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곤경에 빠지면 파수꾼의 죄부터 먼저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겔 33:6)

작금의 불신자들마저 말세라고 한탄할 정도다. 그런데도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을 욕심으로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또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강조하는 목사들이 같은 목사로서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훨씬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 세대의 영적인 흐름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해 침묵하는 목사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심판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로 신자가 거짓 증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하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8 에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 회개, 제사, 선행 같은 인간의 공로가 더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바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할 때에 여호와 외에 예수라는 다른 신을 전파한다고 판다했다. 그러다 다마섹 동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체험을 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았다. 그 후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전파하는 즉,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길은 열렸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저런 것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더 좋아한다.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자더러 인간적인 자기 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담의 원죄다. 그 원죄에서 구원을 시켜주어야 할 교회와 목사가 거꾸로 그 원죄를 더 부추기는 짓을 하는 꼴이다.

또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인간 스승에 불과하기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하나님도 그런 자를 구원한다고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완전히 헛되고 헛되게 만드는 짓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십자가는 요한복음 1:1 의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바로 저 같이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을 구원할 경륜이다. 세상 만물 특별히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죄 중에 있는 인간을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로만 상대하신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절대성, 완전성, 영원성, 충족성, 특별히 유일성을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훼손하면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에 대해 위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위증이다.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특유의 교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모든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다. 예수 십자가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긍휼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새로운 존재로 바꿀 수 있다. 단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죄를 깨끗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지고 찢어지고 깨어져서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

십자가 은혜로 힘을 얻고 살라.

십자가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하고 충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고 기동하지 않는 어떤 인생도 갈급하고 허망해진다.

바울이 스테반을 처형할 때만 해도 인간 세계에서 인간적 의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존재가 뒤집어진 후로는 천하 죄인 중의 괴수라고 자백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살리시고 또 사도로 세웠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헌신 실천했다.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보상의 차원이 결코 아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님을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아그립바 왕이여 쇠사슬에 결박당한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자기처럼 되길 바란다고 간곡히 권했다. 또 유대인들이 유도 예수를 믿지 않자 자기는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도 되지만 제발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절규했다.

신자들이 세상 앞에 진실 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진실해야 한다. 그분에 대해 결코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 바울처럼 자기 삶으로 그래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 십자가 밖은 죽음이요 그분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실패하는 체험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정도 밖에 안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들다. 매번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주님과 교제 동행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과 문제를 기도하여 응답 받는 것인가? 상처와 시련을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 받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떼쓰는 정도다. 아무리 억지떼를 써도 여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함없다. 부모에게 사랑스런 자식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 부모도 아이가 중학교만 들어가도 떼를 쓰도 들어주지 않는 일이 더 많다. 스스로 자립하라는 것이다. 신자의 인생도 그래야 한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최소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거짓 증거,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자 또 전도와 선교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예수님의 빛이 신자를 통해 비취 나오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신자가 그 빛을 막고 있거나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다면,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 찬양으로 위로하는 일들이 너무나 신난다면 어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말이다.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오늘 아홉 번째 계명의 뜻이다.

십계명의 결론은?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

탐심과 탐욕.

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자신은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고 있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오늘 살펴볼 열 번째 계명인 이웃의 물건을 탐한 적도 없기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반발하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성경의 구원진리는 물론 오늘의 본문의 뜻도 모르는 그들로선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문제는 도리어 그런 반발에 제대로 변증하지 못하는 신자이다.

우선 탐낸다고 하니까 우리말 어감(語感)으로는 마치 훔치려 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계명과 중복된다. 탐낸다는 것은 이웃의 소유가 내 것보다 훨씬 좋아보여서 갖고 싶어지는 욕심이 커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그녀가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간음과 같은 죄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의 의미이다.

또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 단순히 집(house) 자체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지 않는가? 이웃 사람과 그의 삶과 인생 전반을 대변하는 뜻이다. 그래서 본문 안에 자기 것보다 더 좋게 여기는 대상이 재물만이 아니다. 아내, 남종과 여종, 소 나귀 같은 가축들이다. 마지막에는 '무릇'이라는 형용사로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열 번째 계명은 욕심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과하게 품는 것을 타하는 의미와 전혀 무관하다. 또 마음으로 짓는 죄도 분명히 죄로서 죄의 범주를 정확하게 정죄 혹은 확장한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십계명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5에서 9까지 다섯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탐심이라는 뜻이다. 또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정작 행하지 말아야 할 첫째 사항이라는 것이다.

살인은 이웃의 육신적 생명을 탐한 것이다. 간음은 이웃의 아내, 도둑질은 이웃의 가축은 물론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 즉 재물로 간주된 남종과 여종을 탐한 것이다. 거짓 증거도 당시는 단순한 농경사회라 재물의 소유권 분쟁이 거의 전부였다. 간혹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신 대로 말로 상대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이웃의 인격을 탐한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 네 계명을 지키지 못함이 탐심이 그 원인임을 쉽게 이해 수긍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탐심 때문이다. 효도하는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자기 형통과 안락에 사용했기에 공경을 잘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 받은 금수저 자녀일수록 명절에 부모를 찾기 보다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다. 자기 치장을 해서 남보다 우월한 것을, 최소한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웃의 풍요를 너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고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는 자들도 이 열 번째 계명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어야 마땅한데도 배가 아프다고 한다. 그런 일에 단 한 번도 배가 아프지 않았던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지금 십계명은 인간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탐심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탐심이 없다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럼 열 번째 계명은 탐심이 죄의 본질이라고 최소한 시발점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특유의 진리만이 아니다. 고대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생각을 하므로 짐승과 다른 인간이라는 것이다.

십계명과 연결해서 따져보면 생각이 악을 도모하니까 말도 악하게 나오고 악한 말이 지나치다 보면 악한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 반대로 행동이 악하니까 말도 악해지고 또 그래서 생각까지 악해진다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 종교와 윤리에선 마음이 추악한 것까지는 죄라고 간주하지 않고 정도를 벗어난 욕심이 아닌 오늘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탐심이 죄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는 너무 모순이지 않는가? 이미 마음이 죄의 원인이라고 모두가 인정해놓고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다.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끼리 다툼을 없애려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다. 인간사회에 분쟁과 죄악이 번창하는 것을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인간 공동체의 보존과 유지만이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가 되면 곤란하다. 역으로 말해 내 혼자서 무엇을 하든 나의 자유와 권리이지 죄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설령 내 자신과 내 주변에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책임지겠고 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스스로 자기 일을 책임질 수 있는 두 성인끼리 상호 자발적 합의 하에 행하는 간음과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데까지 발전한 것이다. 그들에겐 자신의 육신과, 설교 중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는 실제로 육신이 아주 추하고 망가진다, 정신과 영혼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추악해지든 말든 아무 문제 삼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는 생각과 영혼의 고결함을 추구하는 자들도 많다. 그러나 그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남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타인의 소유도 존중하고,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열심히 자기 소유를 모아 쌓고 즐기면서, 인간 사회의 근본 윤리의 테두리를 지키자는 정도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의 내면의 마음 발이 선하고 또 자기 책임 하에 자기 노력으로 그 마음을 스스로 얼마든지 다스릴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유행가 가사에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유행가란 모든 대중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자기 마음도 모른다고 대다수 사람이 인정했다.

솔직히 말해 저부터도 아침저녁으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생각이 여러 번 바뀐다. 한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두고도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변화무쌍해진다. 나아가 행동과 말과 생각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각기 따로 놀기에 스스로 놀라는 것이 인간이다. 심지어 전혀 의도도 하지 않았고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수시로 사악한 생각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러는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악한 인간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보겠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은 정말로 오래 궁리 계획한 후에 자기 경비와 시간과 노력을 쥐어짜야 어쩌다 한 번 성공한다. 반면에 악한 일은 전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수월하고도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다. 분명히 자기 경비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데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악은 행하면 행할수록 더 재미가 있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 죄의식도 거의 없다.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스쳐지나가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괜찮다, 또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라고 핑계를 대면서 점점 더 따져 든다. 너무 재미있는데다 조금 꺼림칙한 측면을 없애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참을 권유한다. 공범을 만들겠다는 심보다.

그 권면을 거부하면 혼자서 잘난 척 한다고 비난한다. 어른들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골려 먹으려 작당한 후에 순진하고 착한 학생에게 함께 하자고 권한다. 그 학생이 거부하면 이제는 때를 지어 그 학생을 왕따시켜 버린다. 한국에선 소셜미디어(SNS)에서 즉,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서 집단적인 악플로 상처 받아서 초등학생이 자살한다.

이런 판국에 어떻게 인간의 마음 발이 선하고 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가? 성경은 노아의 홍수심판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창 6:5)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그 '항상'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는가? 아예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았는가?(창 8:21)

혹시라도 인간이 이웃의 것을 좋게 여기는 선한 시기심이 자연발생적인 반응일 뿐이고, 상식과 이성의 범위에서 과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일부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세상의 것을 전부 100 이라고 치면 이미 99 개를 가진 자가 마지막 남은 한 개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크다. 인간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기 노력의 열매로 여긴다. 반면에 못 가진 것에 대해 집착만 하는 존재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오죽하면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남의 소유를 시샘하는 것이 나쁜 일이므로 하지 않겠다는 선한 뜻은 그 안에 하나도 없다. 남의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 생각이 건잡을 수 없지 자꾸 드는데 혹시라도 상대가 나의 그런 낚시까지 알아채버리면 두 번이나 패배하는 셈이므로 부러운 내색을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않는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죄를 범하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꾸짖었는가? 왕은 이미 99 을 가졌는데도 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가 달랑 하나 가진 것마저 왕의 지위와 권력을 동원해 빼앗았느냐고 크게 질책했다. 오늘의 열 번째 계명의 뜻대로 이웃의 아내에게 탐심을 가지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 번째 계명의 위반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십자가 자체인 열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와 연결해서 묵상해야 한다고 내내 강조했다. 이 열 번째 계명이 가장 두드러지게 연결되며 예수 십자가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펴본 대로 인간 내면의 마음 발 자체가 너무 추악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첫째에서 넷째 계명도 신자가 가져선 안 되는 탐심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교회에서도 중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므로 좌로나 우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 소유를 줄이고

근검절약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설교하고 가르친다. 그 뜻은 선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옳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자 세상 종교나 윤리 모두가 가르치는 것이. 교회 가르칠 내용이 아니다. 그런 것을 배우려면 교회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신자의 탐심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정도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첫째 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 당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당신을 사랑하라는 명시적 뜻도 아니다. 그냥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한다.

물론 지금 출애굽의 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체험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랑으로 통치 중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은 입이 아프다는 것이다. 인간이 정말로 생각하는 동물이라면 그 진리는 당연히 알 수 있기에 따로 설명이 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훨씬 후대의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라고 그 뜻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사고하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고 덧붙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완벽한 사랑으로 보호 인도 받기에 고귀한 존재이다. 또 그런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기에 고귀한 존재이기도 하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대신에 너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그 네 계명의 뜻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부, 외면, 등한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참 쉽지 않는가? 오늘날의 신자들도 주일을 지키는

것에 큰 어려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은 겁이 나서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우상을 새겨 섬기는 자 없지 않는가?

이 넷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고개를 하나님 쪽으로만 돌려놓고 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뜻이다.

신자의 탐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배운바 대로 바로 너희가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다.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제발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너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탐심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 삶, 인생 전부를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그것이 탐심이 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보라. 피조물인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겠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생각인가 말이다. 꿈도 못 꿀 엄청난 패역한 생각이지 않는가?

신자의 탐심은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에 대한 도가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불신자들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뿐이고 또 그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탐욕이 문제가 된다.

그들은 생각이 악하므로 말과 행동이 악해지는 것까지 인정한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다스리려고 노력도 많이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왜 생각이 악해졌는지 그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 악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악한 생각을 다스리려 한다. 탐심으로 가득 차서 이미 부패한 자기 마음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려 덤비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불신자들이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서 그 삶이 갈급한 것이 결코 아니다. 자기 영혼을 고귀하게 유지하려는 노력도 죽을 때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그분을 거역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신자의 탐심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못하는 것이 탐심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이웃의 모든 소유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다. 이웃 사랑까지 못하면 최소한 탐내지는 말아야한다는 것이 열 번째 계명이다.

탐심은 우상숭배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고 했다.(골 3:5) 음란은 간음, 부정 사욕은 도둑질을 일으키듯이 인간 사회의 모든 최악의 원인들이다. 십계명으로 따지면 5-9 째의 인간관계의 계명들을 어기게 만드는 요소다.

마지막에 하나를 더 보탤다. 탐심을 죽여야 하는데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된다. 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실종되거나 약화되면 그 자리를 자신이 대체하거나 자기가 더 강화된다. 바로 자기가 우상숭배의 대상이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 되는 이유다.

요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했다.(요일 2:15)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다. 역으로 말해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간음의 죄보다 탐심의 죄를 지적 받은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주께만 범죄 했다고 철저히 회개했다. 주의 목전(目前)에서 즉,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실토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간접적으로 살인한 밋세바의 남편이 우리야와 그 집안에 가장 크게 잘못했음에도 하나님께만 범죄 했다고 고백한다.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했거나, 왕이니까 부하에 대한 잘못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된 까닭이 잠시 하나님을 자기중심에서 놓쳤기 때문이라는 처절한 고백이다. 바꿔 말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탐심이 죄의 본질임을 철두철미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오늘로써 십계명 강해를 마친다. 열 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앞장세우거나 위에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자기 발아래인데 이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자기 발아래의 먼지가 된다. 그 소유를 탐하게 되고 말과 행동의 죄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오묘하고 풍성한지 미처 모르는 것이 신자의 탐심이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품어선 안 되는 생각 금도를 넘어서는 생각이 바로 탐심이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 윤리로만 따져도 이 열 번째 계명에서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다. 사춘이
논을 사면 다 얼굴은 웃지만 속은 시기와 분노로 뒤틀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마음 발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부끄럽게도 제가 최근에 탐심을 많이 가졌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상하고 충족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목사인 제가 이런 판인데 인간 모두, 신자모두에게 예수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예수 십자가 밖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바로 이 탐심을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생각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전체가 결론적으로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신자가 평생토록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출 24:1-1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출 24:1-11)

기괴한 피 뿌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한 후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20:18 에서 23 장까지 각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시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계명들을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백성들이 순종을 다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상상해보면 뭔가 기괴한 느낌이 든다. 각 지파별로 돌기둥을 세운 것(4 절)은 빠짐없이 모두가 순종을 맹세하는 표식이요, 이 뜻 깊은 날을 기념하겠다는 뜻이므로 이상할 것 없다.

그러나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의 피를 다 뽑아서 양푼에 담았다가 반은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다.(6,8 절) 방금 많은 짐승을 도축했다, 번제물로 완전히 태웠다. 그럼 고기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이다. 거기다 백성들의 머리 위로 피가 방울져 흘러내렸다.

이런 절차를 마치자 비로소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 번제를 필한 후에야 화목제를 드리도록 허락했다는 뜻이다.(5 절) 율법이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함을 배워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전에 약 오백 년 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다는 언약에 함께 참여된 믿음의 후손이다. 출애굽 후에 이곳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이 당신에 대해 온갖 불평을 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어도 다 용서하신 것이 그 증거다. 그런데 다시 백성들의 머리에 꼭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의아스럽다.

제사장 나라의 특권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그 동안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우여곡절 끝에 만 2 개월 만에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로 이끌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가 모세 혼자만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에게 첫 약속을 주셨다.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 내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 너희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보고 체험했지 않느냐?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당신의 통치 아래 있듯이 세계가 다 당신께 속했음을 알 것이다. 특별히 너희가 내 말과 언약을 준행하면 당신의 소유로 삼고 열국 앞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출 19:4-6)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장하여 재확인한 것이다.

모세더러 그 언약에 동참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했고 이스라엘로선 'No'할 이유가 전무했다. 먼저 어떤 민족도 겪지도 알지도 못하는 큰 기적들을 체험했으니 여호와의 소유임에 의심할 여지라곤 없었다.

둘째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미처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우상 숭배 나라이긴 해도 애굽에 있을 때에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을 익히 보아 알고 있었다. 백성들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신탁을 받아서 위로 해결해준다. 신들의 뜻을 계시 받아서 왕의 통치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때로는 왕보다 더 높여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기들로 다른 나라를 지도하여 여호와를 따르게 하는 일을 맡기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착하게 사는 것을 마다할 리는 없다. 타민족의 노예로 살 때에는 생존에 급급해서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거룩은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흔쾌히 동의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위로 불러올렸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산 밑에 경계선을 치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명했다. 선을 넘으면 모두 죽는다고 경고했다. 대신에 각자가 옷을 빨고 3 일 간 성결 의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했다. 바로 그 3 일 간 모세에게 십계명과 관련 규정들을 계시해주셨다.

오늘의 본문 3 절에서도 다시 모세더러 십계명과 관련규정 그대로 순종할 것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이스라엘로선 크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았을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안식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등은 문제 될 것 없었다.

인간관계에 관한 여섯 계명들도 오늘날의 불신자들조차 얼마든지 잘 지킨다고 큰소리치듯이 그리 까다로운 명령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썼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이다. 흔히 천륜(天倫)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다.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누리려면 그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피 제사와 물 제사

하나님은 이 둘째 서약 후에는 물 제사 대신에 피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다. 그렇다면 본문의 피 뿌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씻는 절차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 열 번째 재앙을 겪을 때에 애굽 사람과 함께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죄인들이었다. 실제로 그들의 우상숭배 제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가로 세로로 바르고 자기들은 집 안에 있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출애굽 후에 여러 번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품어주셨다. 또 지난 3 일 간 성결의식을 거치면서 그런 지난 잘못에 대해 참회 회개했을 것이다. 나아가 십계명을 전수 받는 본문의 현장에서 따로 지은 죄들은 없었을 것이다. 구태여 속죄제를 또 드릴 필요가 없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다. 십계명을 전수 받기 전에는 물론 성결의식을 거행했다. 십계명을 받은 후에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 머리에 피를 뿌렸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으나, 정말로 신자답게 사는 것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지금껏 실감하듯이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다.

예수를 믿는 일은 정말 살고 죽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 값을 감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 보혈의 필터를 통과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의 수정 축소 취소는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신에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러면 하늘의 참 생명의 역사가 풍성이 임한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잠간이라도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만한 필요가 꼭 있을 때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도 목숨 걸고 실천하라고 명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며 순종하라고 가르쳤다. 구약의 하나님보다 조금 부드럽고도 알기 쉽게 표현했다 뿐이지 그 내용은 완전히 똑 같다. 간단하게 말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지 않는가? 소금이 되려면 썩어 없어질 세상에 뛰어 들어가 소금 자체가 녹아 없어지면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자기는 죽되 다른 많은 이들로 예수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빛을 비추는 등경은 의자 밑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매달아 모두에게 비춰야 한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다른 이로 알게 해야 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예수님의 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다. 너희가 죽어서 다른 이를 살려라. 너희 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 너희 자신의 것으로는 절대 남을 살릴 수 없다. 너희 것을 완전히 죽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선한 것으로 남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복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다.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날의 신자도 불신자에게 예수 십자가 구원을 알게 함으로써 믿음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불신자들이 받는다.

현재 교회의 실상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실상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를 따르면서 순교까지 감당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기는커녕 하나님의 힘을 빌려 자기를 풍요하게 치장하는 것이 믿음이 갖는 첫째 목적이요 용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또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절대 다수다. 그런 교회가 과연 기독교 교회인지, 그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물론 예수님이 그들 안에도 계실 것이다. 단 그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워서 슬픔을 가득 안고서 말이다.

또 아무 공로 자격 선행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교리를 너무 강조했다. 중세 교회들이 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하나님 대신에 교회가 구원을 수여하게 되었고 그런 절대 권력을 지니다보니 자연히 절대 부패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며 필연적인 개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독교 교리를 입술로만 시인하면 되는 가벼운 믿음이 성행하고 또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례 내지 침례 증서를 남발하는 값싼 구원이 번창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교회와 목사가 구원을 주관하고 있는 셈이다. 개혁 대상이 되었던 종교개혁 전의 구태로 돌아갔다.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헌금 봉사를 많이 하라고 한다. 돈과 축복을 바꾸었다.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너무 뻔뻔스러워 보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거룩하게 포장해서 속이고 있다.

제사장 나라로서 신자는 살아야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듣기 힘든 정도가 아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말, 금기어 리스트에 올랐다.

예수님께선 당신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기려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셨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을 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그런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는가?

주님의 당신 백성을 향한 사랑이 신자 주변을 풍성하고도 사치스럽게 바꿔주는 모습이 아니다. 신자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고 그 영혼의 내면에서 샘솟듯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솟아나게 하신다. 또 세상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다. 예수님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다.

과장된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

예수 믿은 후에 신앙생활이 살고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본문 6 절서 피의 반을 제단에 뿌렸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당장 지은 죄가 없다.

물론 모든 인간이 항상 죄에 찌든 본성에 사로 잡혀 있기에 그런 점을 두고 다시 성결의식을 거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3 일 간 물로 그런 의식을 거쳤다. 또 십계명을 전수 받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과 믿음을 바치는 상징적 절차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본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은 피 뿌림의 절차가 반드시 있었다. 동물을 죽여서 둘로 찢개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그 사이를 두 언약 당사자가 지나갔다. 어느 쪽이라도 위반하면 죽음의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지금 피의 반은 제단에 또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다. 모세는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선언했다.(8 절)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께 뿌린 것을 의미하고 그럼 하나님에게도 언약의 피라는 의미가 된다.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킬 리도 없고 꼭 죽을 리도 없다. 대신에 하나님 쪽에서 이 언약을 지키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세우시고야 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피를 뿌렸다는 것은 어쨌든 죽음을 의미한다. 이보다 약 1,500 년 후에 예수님이 그 약속의 상징대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 사함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너희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필코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맹세의 절차가 십자가였다.

본문에서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장로 70 명이, 그 숫자가 의미하듯이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 즉 머리에 피를 뿌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서약한 이들이 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래도 죽지 않았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성경은 선언한다.(11 절) 존귀한 자란 제사장 장로 같이 일차적으로 그 직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70 이 전체를 대표하듯이 피 뿌림의 제사로 언약 이행을 맹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여겨준 것이다. 아직 그 언약을 전혀 실행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존귀하게 대우해 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전의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 언약에 동참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신분이 되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 안에 산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평생에 걸쳐 목숨을 걸고 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나 주변을 풍성하고 형통하게 해준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십자가,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다.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씨름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을 베풀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바로 하늘의 참 생명을 이 땅에서 나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주변 사람이 보아 알 수 있도록 실제로 구현해 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신자가 평생 자문(自問)해야 할 질문

정말 솔직하고도 겸허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매일 아침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평생을 그렇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그분의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가?

종교적 의무감을 고취시키려는 뜻이 아니다. 심지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의미도 사실상 아니다. 예수님 그분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네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

바뀌 말해 예수 십자가에서 썩어질 옛 사람이 완전히 깨어져 죽고 새 사람으로 진정 거듭났는지 물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한 시라도 살지 못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잘 들으시고 오해가 없어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에게나 목숨을 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본문 출애굽의 언약이행 절차를 거치라고 하지 않는다. 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입술로 동의했다고 무조건 죽기까지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구약 모두에서 절대로 무례, 강요, 협박, 독선, 율법적이지 않다.

정말로 예수 십자가에 철저히 깨어져서 옛 자아가 죽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물으신다. 나를 따르는 것이 정말로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 있다고 물으신다.

그리고 그에 기꺼이 화답하는 신자도 이미 세상에서 주님 없는 삶이 헛되고 헛되어 죽음뿐이었음을 절감했다. 그런 자라야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저를 보내달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임을 자신의 지난 체험으로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소원은 있어도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속에 죄와 욕심이 남아 있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모두가 선교사 목사가 되어 순교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세상에 육십억 명이 있다면 육십억 가지의 방법이 있다. 각자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찾거나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만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법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었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인생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목숨 걸고 따를만한 유일한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길 서원하는 피 뿌림의 제사를 드린 뜻이기도 하다.

에필로그

한 미국 신학자가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해 시계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시계가 좋고 나쁜지는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값진 보석을 박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고장 없이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여부로만 판단해야 한다.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을 잘 달성하는 것이 좋은 시계이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 만든 자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만약 인간을 만든 자가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인생을 만든 주체가 없기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인간 고유의 목적도 없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그분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는 결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창 1:28)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께서 이미 창조해 놓은 완벽한 피조세계를 그분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시도했고 그 결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원래 자기를 만드신 이의 그 만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무슨 일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도 아니요, 온갖 죄악으로 인간 사회를 추악하게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인간적 업적과 공로를 세워도 그 삶과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므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금훔에 다함이 없으신 그분은 인간들을 당신의 뜻을 대신 실현시킬 자로 당신께서 만드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신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창조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인간끼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허무와 갈등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의미와 가치를 회복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신자들만이라도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아니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자신과 자기 주변에 실현하여서 살아갈 기쁨과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글이나 설교들을 되돌아보면 당시는 미처 몰랐던 미진한 부분들이 쉽게 눈에 띄어 많은 아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항상 그래왔듯이 보완하는 일은 또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